

육사오 (b/45)

(심의대본)

감독
박규태

제작
TPS컴퍼니

시놉시스

비무장지대 최전방 GP에 근무하는 말년병장 천우는 근무를 서다 우연히 주운 로또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 57억이라는 거금을 쥐게 된 천우의 군 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세상도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경계근무를 서던 중에 한번만.. 딱 한번만 더 봐야지 했던 57억 로또는 바람에 날려 운명처럼 북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그 로또를 북한병사 리용호가 줌게 된다.

군사분계선 철책 선을 넘어 미친 듯이 로또를 찾아 헤매던 천우는 로또당첨금을 찾아 줄 남한병사를 만나러 나온 리용호와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은 로또의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된다. 각 진영에서 인원들도 계속 추가되고 남측에선 소초장인 강대위와 상병 만철이 합류하게 되고 북한의 정치지도원 최승일과 상급병사 철진이 합류하게 되면서 정말 남과 북의 대결국면처럼 변해간다.

각 진영의 인원이 정리된 후, 첫 협상을 할 장소를 6.25때 사용하던 ‘공동급수구역’을 접선 장소로 정하고, 드디어 접선을 하는 남측과 북측. 예상대로 협상은 쉽지 않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진다. 그때 남측의 급수담당 보급관이 나타나 남북을 중재하며 타협안을 내놓는다. 지분협상은 그렇게 평화롭게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돈이 전달되기까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기에 양측은 일주일만 포로교환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흑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확보해놓는다.

공정한 방법(?)을 통해 맞교환할 병사가 선발되고 남측은 천우가 북측은 리용호가 서로의 진영으로 넘어 가게 된다.

하지만 너무나 뛰어난(?)기량으로 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하는 천우와 리용호. 각 진영 병사들의 도움과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한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천우는 북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똑같이 생긴 연희(리용호의 여동생)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한편 로또 당첨금을 찾아오는 막중한 미션을 가지고 부대 밖을 나선 만철은 강대위가 만든 안전장치로 인해 본의 아니게 ‘변태군바리’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돈도 못 찾고 은행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북측에선 천우와 연희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을 때 짬, 평소에 연희를 흠모하던 보위지도원 김광철이 둘 사이를 훼방을 놓으려 한다. 천우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서류를 뒤져보던 김광철은 ‘육사오’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 수상한 냄새를 맡게 된다. 천우를 불러놓고 취조하는 김광철, 연희까지 불러서 삼자대면을 시킨다. 연희는 기지를 발휘해서 천우를 구해내고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최승일이 본인이 수습하겠다고 한 뒤, 황급히 둘을 공동급수구역으로 떠나보낸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강대위에게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동급수구역에서 만나야한다고 전달하는 최승일.

만철과 최승일을 제외한 남측과 북측의 병사들이 허겁지겁 공동급수구역에 하나 둘씩 모여든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만철이 먼저 돈 가방을 들고 도착한다. 자신의 무용담을 풀어놓는 만철. 남북측이 모두 돈을 보며 단 꿈에 젖어 행복해하고 있을 틈, 김광철이 최승일을 제압한 채 총으로 위협하며 공동급수구역으로 들어온다. 어떨게든

김광철을 설득시켜 보려하지만 김광철은 이미 마음을 먹고 온 듯 돈 가방만 챙기고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

절체절명의 상황! 바로 그 때, 새끼 멧돼지의 찾아 헤매던 어미 멧돼지가 새끼의 체취를 따라오다 공동급수구역을 오게 되고, 돈 가방을 새끼 멧돼지로 착각해 공동급수구역을 썩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돈가방까지 가지고 나가버린다. 김광철이 멧돼지의 뒤를 쫓아가고 철진도 따라 나가본다. 멧돼지를 쫓던 김광철은 지뢰를 밟고 저 하늘 높이 사라지고 멧돼지는 유유히 사라진다.

공동급수구역에서 철진을 기다리던 남북 측 병사들은 김광철과 멧돼지 곧 돈 가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한다. 그렇게 흩어지려고 할 때, 만철이 돈 가방에 다 들어가지 않았던 돈을 따로 자신의 옷에 숨겨왔던 것을 꺼내놓는다. 남북 측 병사들은 적은 돈이지만 감사하며 흩어진다. 천우와 연희도 아쉬운 이별을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일상. 남북대치의 군사분계선의 전경이 펼쳐지며 그 위로 연희의 대남 방송이 들려온다. 안부를 묻는 듯한 내용. 경계근무를 서며 연희의 방송을 듣는 천우의 얼굴에서...

주요 스텝

제작	TPS 컴퍼니 (대표:김현철)
주연	고경표,이이경,음문석,박세완,이순원,곽동연,김민호,류승수
감독	박규태
프로듀서	박경원
촬영감독	이시언
조명감독	홍명수
녹음기사	김기남/고준영
미술감독	방길성
소품	메이저튼
의상	메탈자켓
분장	계선미

1. 프롤로그

파음~~ 하늘로 솟구치는 조명탄 불빛. 그 아래 드러나는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437 GP초소. 완전군장을 한 하중사(28)가 야외근무초소에 있는 강대위(32)쪽으로 뛰어온다.

하중사

사대위치로!

고참병사

위치로! 탄 박스 어서 받아! 빨리빨리!

병사1

1번 사대 준비했습니다.

병사2

2번 사대 준비했습니다.

고참병사

정신 차려!

병사들

예! 알겠습니다!

강대위

몇 발 날아왔어!

하중사

스무 발은 날아온 것 같습니다!

강대위

이런..개새끼들! 우린 오십 발로 되잖아준다! 대응사격개시!

하중사

(사격진지를 향해) 전방의 허공을 향해! 위협사격 50발! 발사!

병사들

(복명복창) 발사!!!

다다다다~!! 칠흑 같은 어둠속을 불꽃놀이처럼 날아가는 총탄의 궤적 속에서..

CUT TO

남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이 밤하늘 위로 빗발치고 있는 북측 방송관측초소. 그런데..
북한병사 리용호(24)와 철진(22)은 호박씨를 까먹으며 여유롭다.

리용호

몇 발이까?

철진

200발은 되겠습니다.

리용호

(파식) 이.. 간나새끼들, 500발만 넘기라.

다다다다!! 빗발치는 총성음과 함께..

CUT TO

다시 437 GP.

하중사

소조장님! 이번엔 백발 정돈 날아온 거 같습니다!

강대위

이 새끼들이 지금 미쳤나! 지금 전쟁하자는 거야! 2백발 날려!

CUT TO

연천시내, 허름한 소금구이집 TV에서 자료화면과 함께 뉴스가 흘러나온다.

앵커 (E)

몇년 전, 노크귀순으로 뿔렸던 전방부대가 또 뿔렸습니다.

북한의 귀순병사는 철책선을 넘어 군사분계선까지 접근해

아군의 전방초소를 향해 5분간이나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쳐다보는 손님들.

손님 1

에휴.. 빠졌네, 빠졌어. 군기가 제대로 빠졌어..

손님 2

요즘 군대가 군대냐? 존나 굴려야 돼.

CUT TO

한쪽에선 남과 북이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쪽은 너무도 평화로운 소금구이집 풍경.
불쾌해진 얼굴로 웃고 떠드는 취객들 틈으로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이벤트 걸들이 들어온다.

이벤트 걸

딱! 딱! 딱! 좋은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1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이벤트 걸

안녕하세요.

자~행운의 로또까지 딱! 감사합니다!

이벤트 걸들, 행사에 참여하는 테이블에 소주와 천 원짜리 로또를 놓아주며 돌아다닌다.

CUT TO

양구 시내 군용도로, 철모를 쓴 대대장(40대)이 무전으로 강대위와 통화하며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대대장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교전중이라니!

강대위

철원에서 터진 사고 때문인지 북측에서 계속 총격 도발하고 있습니다.

대대장

야!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물러서지 말고 교전수칙대로 밀어붙여!

CUT TO

남측과 달리 평온한 북측 전방초소.

리용호

아... 새끼들... 거 지랄 맞게 탄약소비 해대누만 기래

철진

현재까지 한 3천발은 쏘랜거 같습니다.

리용호

덤으로 3백발 더 날려주라우.

‘물자랑비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구호아래 철진, 200발, 300발, 붙어있는 스위치를 올리면..
카메라 천천히 빠지며, 북한 초소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다다다다~!! 총소리를 출력하는 것을 비춰준다.

CUT TO
소금구이집, 테이블마다 놓인 투명비닐에 싸인 천 원짜리 로또 한 장.
대한민국 최고미녀 모델이 비닐에 싸여 웃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CUT TO
바닥에 떨어져 있던 로또, 주인집 할머니가 쓰레기들과 섞여있는 로또를 쓰레받기에 담아 가게 밖에 버리면..
네온사인 번들거리는 뒷골목,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에 놓인 로또 한 장.
휘잉~~ 불어오는 바람에 로또가 골목으로 굴러 떨어진다. 바람에 밀려 휘잉~~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풀렁~ 떠오르며 이번엔 지나가는 중국집 배달통에 달라붙는다.

‘특박병사 30%할인’ 네임카드를 뿌리며 달려가는 은색 배달통에 붙어있는 로또 한 장.
끼익, 모퉁이를 도는 오토바이의 원심력에 다시 바닥을 나뒹굴더니..
강한 바람을 타고 대로변으로 밀려나와 달려가는 군용 지프차 뒤에 달라붙는다.

지프 뒤, 타이어 사이에 끼여 잘 떨어지지도 않는 위치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로또 한 장.
부앙~ 팔랑거리는 로또를 매달고 달려가는 1호차 지프.

CUT TO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도로를 지나..
부앙~! 대대장을 태운 1호차, 깊숙이, 더 깊숙이.. 최전방 GP로 달려가는데...

CUT TO
GP위병초소, 경계근무중인 신병(21)옆에서 박천우병장(23)이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에게 특별임무를 하달 중.

천우

오늘의 임무다. 지금 대대장님 오고 계셔 알지? 대대장은 팔뚝이 세 개야. 세 개.

강아지

...

천우

가서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신속하게 보고 온다. 실시!

강아지 달려간다.

신병

박병장님.. 강아지랑 대화가 되십니까?

천우

어디쯤이야?!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강아지가 대답한다.

강아지

멍!멍!

천우

500미터?

강아지

멍!멍!멍!

천우

아! 300미터?? ok!! (신병에게) 아! 준비해라

순간, 부앙~! 저 멀리 달려오는 1호차 지프의 헤드라이트.
천우와 신병, 시선 주고받으며 절도 있게 받들어 총!!

천우 / 신병

총! 성!

부앙!! 무시하고 달려가는 대대장의 1호차. 강아지는 지프차가 좋다고 달려가고..
천우의 시선으로.. 지프 뒤쪽에서 풀렁~ 떨어져 나온 로또 한 장이.. 하늘하늘 천우의 발밑에 사뿐히 안착한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미녀 모델의 싱그런 미소. 비닐에 싸인 천 원짜리 로또 한 장.

운명처럼 소금구이 집에서 이곳 최전방 437 GP초소까지 여행을 온 행운의 로또다.

천우, 미녀모델의 사진을 집어 든다. 뒤쪽에 로또를 발견하는 천우. “오호!”

천천히 암전..

타이틀 ‘육사오’

2. GP 내부반. 저녁

‘박천우! 박천우!’ 병사들이 박수를 치며 연호하는 가운데.. 437GP의 전경이 보인다.

내무반, 천우, 소물리에처럼 향을 맡고 입안에서 우유를 돌리며 우유감별중.

병사들

박천우! 박천우! 박천우!

천우

홀스타인중.. 18개월 쯤, 스트레스를 좀 받았네. 뭘은 느낌이 있어.

병사들, 와...!! 탄성을 지른다. 컵받침에 ‘홀스타인’ 적혀있다.

병사들

홀스타인..홀스타인!

우와!!!!

천우

(다른 우유 마셔보곤) 에어서중

병사들

(에어서중 확인) 에어서..에어서! 에어서.. 와아..

병사 1

박병장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거의 우유바리스타 아닙니까?

천우

우리 집이 목장을 크게 했었잖냐. (하는데)

고참병사

목장!..

보급관

목장.... 구제역으로 쫓딱 망했다는 얘기는 왜 빼먹노..

보면, 하사계급장을 단 보급관 류하사다.

병사2

충성!

보급관

야, 성호야! McGr들 근무스러 안 가? 어?

야! 또 노크귀순 터지면 알제? 빨리 출동해!!

고참병사

야 야 이거 빨리 치우고 담당구역 청소하러 가자!.

병사들

예! 알겠습니다!!

천우

빨리 가 빨리 가~

천우

보급관님.. 근무 나가 가십니까?

보급관

아니 암만해도 급수호스가 또 막힌 거 같네. 물 나오는 기 영 시원찮은 기.. 천우 너는 몸 좀 사리라
(나가면서) 말년이다이~

천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쇼!

천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앞 덤블링으로 침상으로 점프한다.

말년병장답게 퍼질러 누워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부대원들 옆에서 장기를 둔다. “야 장기판 가져와봐”

천우

머칠 남았냐...

천우의 맞은편, 각 잡고 앉아 있는 신병. 벌떡 일어나

신병

이병! 김현수! 97일 하고! (시계 확인) 어... 15시 아니아니.. 열다섯 시간하고 30분 남으셨습니다!

천우

아직도??

신병

예. 그렇습니다.

천우

에휴.. 씨..(리모컨 탁탁)?

아이... 또 왜이래...

천우, 리모컨을 두드린다. 고장인 듯 채널이 안 넘어간다.
그렇게 고정된 채널은 매마침 로또추첨방송.

남성 진행자

현재시간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는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복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자, 추첨 시작 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39번.

TV 화면 속, 확르르르, 공이 돌아간다.
방송을 보던 천우, 문득 지프차 뒤에 매달려있던 로또를 주웠던 기억이 난다.
빠걱, 사물함을 열어 로또를 꺼내는 천우.

여성 진행자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몇 번이 나올까요? 36번이네요

천우

와.. 씨발 나 두개 맞았다?

로또를 바라보는 천우, 기분이 짜지는데..

남성 진행자

세 번째 번호 추첨합니다~ 3번입니다!

천우, 로또를 보면 39번, 36번, 3번이 있다.
뭔가 거대한 운명의 기운을 느낀 듯 천우 몸을 일으켜 앉는다.

여성 진행자

네, 3번에 이은 네 번째 행운의 숫자는요... 30번입니다.

천우, 로또를 본다. 그런데 39번, 36번, 3번에 이어.. 30번까지 맞았다.
천우, 이게 뭐가 싶다. 2개만 더 맞으면 되는데.. 천우의 로또에 적혀있는 나머지 번호는 1번과 33번..

남성 진행자

아, 3자 들어가는 번호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 행운의 번호는 1번!!

천우, 동공이 커진다. 39번, 36번, 3번, 30번에 이어 1번까지.. 다섯 개가 맞았다.
이제 마지막 번호 하나.. 33번만 맞으면.. 1등인데..

여성 진행자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몇 번이 나올까요?
공이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하는데)

탁, TV를 꺼버리며 들어오는 강대위.

병사1

치워, 치워치워.

병사2

예. 알겠습니다!

강대위

이것들이 지금 점호준비 안하고 뒷들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 안차려?

천우, 몽유병 환자처럼 TV를 향해 걷는다.

강대위

...???

강대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밀치며 다가가는 천우.

강대위

(이 새끼가 돌았나)....???

천우, TV를 켜면.

여성 진행자

오! 33번이네요!

남성 진행자

자 이제 2등 보너스 볼 추첨하겠습니다.

천우, 스르르... 쿵!! 기절해버린다.

여성 진행자

제 934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9번, 30번, 3번...

강대위

...?? 아! 애 왜 이래?

신병

아무래도 상한 우유를 드셨지 말입니다..

강대위

상한우유?

기절한 천우의 얼굴. 하지만 어찌 보면 미소를 띤 듯 한 그 얼굴..

3. GP 식당. 낮

천우

하하하하하~!!!!

병사1

뭐야 왜 저래??

병사2

미친 거야??

식당에서 밥을 먹던 병사들, 천우를 쳐다본다.

천우, 식당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린다.

병사1

상한 우유 마셨다는데?

병사2

상한우유?

병사3

웃다가 우는데요?

천우

흑흑.... 흑...!!

이번엔 또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린다.

울다가 웃다가.. 바라보는 병사들, 천우가 심히 걱정스럽다.

고참병사

야! 가봐~

병사 1

(다가와) 저.. 박병장님, 혹시 어디 안 좋으십니까?

천우

아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병사 1

....

일어서는 천우, 병사1을 안아주고 나간다.

천우

으하하하하하~~!!!

고참병사

야. 뭐라는 거야??

병사1

모르겠습니다.

4. GP 옥상초소. 낮

아무도 없는 옥상초소에 들어오는 천우. 다시 한 번 로또를 확인해본다.

핸드폰 검색 화면엔 '934회 로또 1등 당첨금 57억!' 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1번, 3번, 30번, 33번, 36번, 그리고 39번.. 제934회 로또 1등..

열 번이고 백번이고 눈을 씻고 확인해 봐도 틀림없는 1등이고, 당첨금은 자그마치 57억이다.

천우

...57억.. 하아...

천우, 환한 미소로 57억 로또를 들고 인증샷 찰카! 셀카를 찍고 난 뒤 로또와 함께 찾아온 대한민국 최고미녀

모델의 사진을 본다. 링크하는 사진 속 모델.

천우

(행복하다) 하하하....

5. GP 옥상초소 / 북한군 방송관측초소. 오후

남북 군사분계선, 남한군 GP, 북한군 방송관측초소 전경 위로 대남방송 깔린다.

여인의 목소리 (OFF)

남조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불철주야 고된 전방근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 초소 군인들은 경외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방송실도 겸하는 옥상감시초소, 대북방송담당인 천우가 툭툭.. 마이크를 친다.

천우

아아.. 북한병사 여러분~ 방금 대한민국 기상청 슈퍼컴퓨터에서 날씨예보가 있었는데요.
(북한초소, GP, 전경. 빨래를 널고 있는 북한병사들 사이로 들리는 천우 목소리)
3시간 뒤에 비가 온답니다. 동포의 정을 담아 슈퍼컴퓨터 하나 없는 북한에 알려드립니다.

천우의 대북 방송을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 강대위와 만철의 모습.

연희

아아아 이를 어깝니까? 우리 북조선의 과학위성 광명성 제2호에 따르면 비가 안 온답니다.
지랑 이렇게 방송하면서 정도 많이 든 우리 방귀납 병장동무.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이름도 촌스러운 방귀납 동무를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해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리용호와 철진도 북한군 행정실에서 호박씨를 까먹으며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각자 세를 과시하던 최전방 GP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천우

우리 북조선 아이유 동무께서 삼행시를 준비하셨다는데 당연히 들어봐야지요.

연희

방, 방귀나 뽀뽀 댈어대는.. 귀, 귀남동무는.. 남, 남조선 핫마지.

하면, 북측 행정실에서 한 방 먹었다고 좋아하는 북한군인 리용호와 철진. 박수치는 북한병사들.

철진

연희 동무 거 살살하시랴요.

별로 큰 타격이 없어 보이는 천우.

천우

아이~ 우리 아이유 동무께서 3행시를 보내주셨으니까 저도 3행시로 답가를 보내드려야겠어요.

연희

저도 압니다. 아이유가 남조선 최고 미녀가수디요? 제가 운을 띄워볼까요? 아.

천우

아직도 지가.. 이, 이쁜줄 알다니... 유, 유감이네요...

하면, 집무실에서 방송을 들은 강대위와 만철. 아오~!!! 책상을 두드리며 환호한다.

만철

와!! 박병장님!!

연희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남조선 병사새끼래 너 애인 없디?

천우

아유..화가 많이 나셨네. 근데 이 애기들으면 더 화날텐데..
그쪽은 군생활이 10년이지요? 이걸 어쩍니까. 난 곧 제대하는데..

하면, 아오~!! 월월월~!! 식당 옆 잔반 처리대에서 강아지도 환호성을 지른다.

천우

(킁킁) 약 오르디요?

연희

고약한 속통을 버리지 못하고 밟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 되기 십상이니까네..
리성을 잃어버린 환장질 그만하고 넘어오라우. 넘어오라우!!!!

연희의 앙칼진 소리가 비무장지대에 찌렁찌렁하게 울린다.

6. 강대위 집무실. 낮

흥얼거리며 두발정리하는 강대위. 집무실로 들어오는 하중사.

강대위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중사

충성!

강대위

뭐야?

하중사

아무래도 저희 GP에 관심사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대위

관심사병?

하중사

박천우 병장이 요새 좀 이상합니다.

강대위

박천우?

7. GP 야외근무초소. 낮

씩아.. 갈대밭을 훑고 지나가는 한줄기 바람.. 팽그르르.. 매섭게 돌아가는 풍향계.

푸른 하늘이 보이는 야외근무초소,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독서중인 천우..

제목을 보면 ‘이젠 내 시간표대로 살겠습니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등등이다.

천우의 옆, 각 잡고 서서 근무를 서고 있는 신병, 그 옆에서 강아지도 퉁 버티고 서서 근무 중.

강아지의 머리에는 하이바 비슷한 걸 만들어서 씌워 뒀다.

천우(OFF)

진짜 부자는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품위를 지키는 긍정적인자세. 그것이 진짜 상류층.

음.. 좋은 내용이야.

신병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천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니 고참한테 물어봐.

신병

(강아지와 눈이 마주치는 신병) 작은 게 아니라.. 큰 겁니다.

강아지

멍! 멍!

천우

고참 잘 뒀다. 다녀 오래, 똥 참는 거 아니래..

신병, 설사가 나오려는지 꾸르륵거리는 배를 부여잡고 다급히 초소를 내려간다.

천우,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책속에 끼놓은 로또의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본다.

1번, 3번, 30번, 33번, 36번, 그리고 39번.. 눈을 씻고 봐도 1등, 언제 봐도 확실한 1등... 그런데 그 순간..

신병

(다급하다) 안돼... 잠깐만... 험...으어.....!

돌아보면, 어흑...!! 꾸르륵 거리는 배를 부여 잡고 힘겹게 초소 계단을 내려 가는 신병.

천우, 끄끙대는 신병을 보다가 로또를 꽂아놓은 책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는데,

로또가 순간 바람에 날아간다!

천우

...???!!!!

천우 식겁해서 초소 밖으로 날아가는 로또를 바라본다.

어어!! 날아가는 로또를 잡기 위해 초소 아래로 내려가는 천우.

천우

어!! 어어!!! 으.. 으아! 나와아~!!!

신병

헉! 흐흐흑...하...

천우가 밀치자 그대로 바닥에 철푸덕 주저 앉고 만 신병.

천우. 로또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달려간다. 초소 밖으로 나와 보면 철책선 폭대기에 묘하게 걸쳐있는 로또..

천우

어.. 안돼... 어떻게 ...안돼....안돼!!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휘청휘청 하다가.. 휘잉~~! 로또는 그만 북으로 날아가 버린다.

천우

어! 아아악! 아악!!!

절망하며 주저앉는 천우.

8. 북측 비무장지대. 낮

로또가 날아간다. 바람에 밀려.. 날아간다.
분단의 아픔을 담은 비무장지대를 여행하듯 날아가는 로또.
녹슨 철모위에서 잠시 쉬어가는 로또. 다시 힘차게 날아오른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북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한참을 날아가던 로또가 가만히 안착하면..
슬그머니 로또를 주워드는 손, 망태기를 둘러매고 더덕을 깨던 북한병사 리용호다.
리용호, LOTTO 6/45라고 적힌 종이쪼가리를 쳐다본다.

리용호
이거이 뭐이네...??

뭐지? 처음 보는 물건이다. 리용호,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바닥에 던져버리고 돌아선다.
이내 휘잉~~~ 바람이 불어와 다시 로또가 허공으로 떠오르더니 바람에 밀려 다시 발치에 찾아든다.

리용호
...??

리용호, 운명처럼 다시 나타난 로또를 본다.
로또를 품에 넣는 리용호, 북한초소를 향해 걷는 그의 뒤로 붉은 노을 가득 해가 저물어간다.

9. 북한군 행정실. 밤

행정실, 대남 해킹전문인 상급병사 철진이 혼자 컴퓨터로 독일전쟁영화를 보고 있다.
문이 열리며 리용호가 들어온다.

철진
어서 오시라요, 리용호 동무.

리용호
(주전자로 향하며) 아니.. 뭘 그리 보고 있네?

철진
그냥 심심해서 독일전쟁영화 보고 있었습네다. 같이 보시갔습네까?

리용호, 독일어 대사를 따라한다.

독일전쟁영화 속 화면과 정확하게 씩크가 맞아 떨어진다.

리용호
메하크 뷰어허디(홍미롭군)
파슈 아우프덴 드롭퍼 슈미허르(윤희유의 압력을 조심해)
디 게라일츨 낱 앵글란트 쾨프(영국행 수송함이야. 5척이나..)

철진
(영상 멈추며) 이야..동무래 이젠 아예 외우갔습다.

리용호
내래 이거 백번도 넘게 봤어 야.

리용호, 주머니에 넣어놓은 로또가 불현 듯 생각난다.

리용호
아! 철진 동무 내래 뭐 좀 하나 물어봐도 되잖어?

철진
판사람은 몰라도 리용호 동무는 도와드려야디요.

리용호
내래 그.. 남조선 종이쪼가리를 하나 주웠단 말이야.
이거이 뭘 줄 아네?

리용호, 품에서 로또를 꺼내 보여준다.

철진
(살펴보며) 이거이 육사오라는 겁네다.

리용호
육사오?

철진
육사오라고 45개 번호 중에 6개를 맞히면 거금을 준다며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극악무도한 자본주의 착취기술 이디요. 기칸테.. 이거.. 추첨일이 저번 주구만요?

리용호
이거이거 최신 종이쪼가리구만. 기래

철진

재미삼아 한 번 보시겠습니까?

리용호

기래.

철진, 타다닥!!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로또 당첨 번호 추첨 인터넷 사이트가 모니터 화면에 뜬다.

철진

됐습니다. 이제 뜹니다. 1번, 3번, 30번.

지직지거리며 화면이 잘 안보이자 컴퓨터 모니터를 몇 대 두드리는 철진.

나머지 로또 번호를 맞춰본다. 33번, 36번, 39번이 적혀있다.

철진

(점점 눈 커진다) 33번...36번, 마지막으로 39번.....

이야..이거이 1등 번호임다..

철진이 들고 있는 제934회 로또번호는 1번, 3번, 30번, 33번, 36번, 39번이다.

눈앞에서 로또 1등을 확인한 철진,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벌개지고.. 차마 말을 못한다.

리용호

철진등무 와이카네.

철진

이거이...

리용호

이거이 뭐~

철진

그러니까네.. 이거이.. 어깝니까..!?

리용호

응?

아직 상황파악에 달 된 리용호 철진의 반응에 가웃한다.

10. 군사본계선 철책선 근처. 밤

삼중으로 둘러쳐진 GP 철책선 밖에 위치한 또 하나의 추진철책.

천우, 야전삽으로 죽어라 개구멍을 파고 있다. 잠시 후, 쭈욱, 천우가 개구멍으로 나오면서..

천우

아오...허리 부러 질 뻔했어..

무릎까지 수북이 솟아오른 풀숲을 지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갈대밭을 지나..

나름대로 낙하지점을 포착, 가위표를 그려 넣은 그림지도를 들고 로또를 찾아 해매는 천우.

천우(OFF)

기온은 섭씨21도 바람은 북동풍 풍속은 14m/s 로또 한 장의 무게는 75그램.

자유낙하운동 공식을 대입하면 로또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1.23키로

‘들어가면 죽는다.’ 대인지뢰가 뿌려진 곳이라 들어가면 정말로 죽는다는 살벌한 경고.

천우, 로또를 찾아 해맨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솟아있는 대인지뢰 뇌관들. 운명처럼 천우는 지뢰를 피해 다니

고 있다.

천우(OFF)

여기가 바로 로또 낙하 예상지점.

푸스럭, 종이조가리가 천우의 발에 밟힌다. 로또인가? 운명처럼 또 나를 찾아온 건가?

천우

어..! 뭐야!

천우, 집어 들지만 그것은 뼈라..

천우

아이씨.. 뭐야..

이건가? 저건가? 달려가 집어보면 또 뼈라.. 온통 뼈라 발이다.

으아...!! 천우,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데..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

천우

아이씨.. 으아.. 뼈라 다 씹버려 그냥.. 으으으..

리용호

어이!.

놀라 자빠지는 천우.

리용호

어이! 이보라우..

철컹, 총부리를 겨누고 긴장하는 천우. 주위를 살핀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천우, 연신 소리의 진원지를 찾지만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순간.. 눈앞에서 덩불이 쭈욱 일어서는데..

천우

...???

바야바처럼 덩불숲으로 위장한 길리슈트를 입은 리용호가 모습을 드러낸다.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가운데 두고 달빛 아래 조우하게 된 남과 북의 두 병사.

서로를 응시하는 천우와 리용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천우, 슬그머니 총에 손이 가는데..

리용호

손가락 원위치 총 내리라우, .내래 니 안 잡아 먹을테니까니...

리용호, 총을 철조망에 걸쳐놓는다. 리용호, 담배 한 대를 빼어 물더니.

리용호

이리 오라우..

천우, 주춤주춤 다가가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리용호

총 내리라우..

천우도 리용호를 주시하며 천천히 총을 걸쳐놓고..

리용호,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휘파람을 분다.

리용호

이름이 뭐이가?

천우

박천운데요..

리용호

나. 리용호라고 해. 하사 리용호.

천우

(계급장 확인)... 하사 리용호..

리용호

사흘 만에 만났구만 기래.. 내 남조선 병사를 만나려고 나왔어.

천우

(왜 왔는지 알겠다) 아..! 자.. 자유대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용호

자유대한? 뭘 개소리야? 이 간나새끼...

천우

(혼자 중얼거리며) 아.. 근테.. 왜 계속 반말이야..

리용호

너 말이야.. 흑시.. 육사오라는 놀이 알간?

리용호, 신문에 겹겹이 쓴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천우의 로또!

리용호

45개 번호 중에 6개를 맞히면 1등을 준다는 그 육사오 종이쪼가리를 주웠는데 말이디..

이거이 1등 종이 쪼가리라더만..

기래서 말인데.. 니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프로를 주겠어.

천우

아.... 어... 아...!!!

눈앞에서 자신의 로또를 확인한다. 틀림없다. 자기 로또가 맞다.

천우

드디어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리용호

..???

천우

이봐, 북한병사. 그거.. 내꺼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리용호

뭐? 이거이? 니꺼라고?

천우

그래! 그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까?

리용호

간나새끼,

천우

934회 맞지?

리용호

기레..

천우

1번, 3번, 30번, 33번, 36번, 39번!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내꺼야 빨리 내놔!

리용호

이 남조선 아 새끼 누굴 핫바지로 보네? 기리고 이 종이쪼가리에 주인이 어디 있네? 먼저 좇은 놈이 임자다..

천우

야! 그게 무슨 말..! (납작 엎드리며) 어! 저거 뭐야!

리용호 돌아보면, 북측 철책에서 깜박, 깜박, 약속된 불빛이 신호를 보낸다. 시간이 없다.

리용호

박천우 병장, 너 다음 근무교대가 또 언제네?

천우

그건 왜 이씨!

리용호

대답해 이 간나새끼야!

천우

사흘 뒤다..이 새끼야!

북측 철책에선 다급한지 연이어 불빛 신호가 계속 들어온다.

리용호

사흘 뒤에 여기서 또 보자우.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기야. 알간?

달빛 아래, 북쪽진영으로 향하는 리용호를 불러 세우는 천우.

천우

잠깐!

리용호 무슨 일인가 돌아보는 얼굴에서..

11. GP 강대위 집무실. 낮

강대위 앞에 불려가 서있는 천우.

강대위

많이 아프다고?

천우

(열중쉬어 자세로) 아닙니다.

강대위

너 혹시 그.. 밤에 그.. 도깨비 같은 거 만나서 씨름하고.. 그런 거냐?

천우

아닙니다.

강대위

근데 왜 미친놈처럼 밤에 철책선을 넘어서 싸돌아다녀?

그것도 들어가면 뒤지는 지뢰밭에서..! 너 그거 안 터진게 얼마나 다행이야?

너 무단으로 철책 넘어간 거 원칙대로 하면 바로 영창이야!

근데. 몇 달 후면 제대로 또 니가 심각하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천우

소조장님, 저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강대위

(버럭!) 근데 왜 미친놈처럼 밤마다 철책선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를 헤매고 다녀 이 새끼야!

니가 판 개구멍만 다섯 개야! 너 뭐하는 새끼야?! 진짜 개새끼야!
간첩이야 새끼야?

천우

간첩은 아닙니다!

강대위

(볼펜을 집어던지며) 말대꾸! 개새끼!

천우, 얼떨결에 강대위가 집어던진 펜을 잡는다.
도로 팬꽃이에 집에 넣어놓는 천우. 민망한 강대위 괜히 머리를 쓸어 넘긴다.

강대위

일단 본부중대 보고 올릴 테니까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아!

천우, 털어놔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몹시 갈등한다.
그러다 결단한 듯 은밀히 강대위에게 몸을 내민다. 마치 너한테만 알려주겠다는 듯..

천우

소초장님, 제가 사실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강대위

...

천우

내무반에서 TV를 보는데.. 1번, 3번, 30번.. 33번.. 36번 39번이 나왔어요.. 당첨금만 57억입니다.

강대위

...

천우

그 로또를 대대장님께서 지프차를 타고 와서 주셨거든요, 주신 게 아니고 운명처럼 다가온 거죠..

강대위

...

천우

아... 같이 근무를 서던 신병이 갑자기 설사가 나는 바람에..
그 로또가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대위, 이야기에 몰입하는 듯 호응을 해준다.

강대위

그.. 로또가 날아갔어? 그래서?
좀만 뒤로 가라.. 응? 편하게 얘기해. 어, 그래서? (그리곤 수화기를 든다)

천우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하사 리용호라고 북한병사가 훔었거든요.

강대위

(벌써 전화 걸고 있다) 나 437 소초장 강대위데.. 병원 좀 연결해.

천우

아니..아니..소초장님? 제가 엇그제 군사분계선에서 그 북한병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새끼가 나보고 10%만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건데!..

강대위

니끼지! 그러니까 말이 안되지.. 그게. 아이구..
(통화중) 지금 헬기 되나? 중증환자 발생했어. 빨리 보내야 돼...

천우

아니, 아니.. 사흘 뒤에 그 북한 병사 새끼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개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강대위

개구멍이 막혀서..아이구.. 힘들겠다.. 어?
(통화) 엠브란스 안 되면 트럭이라도 보내. 상태?
눈 봐봐. 눈 보자! 응..
(통화) 바로 입원이야.. 빨리!

천우

아니...

천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뒤적거린다.

강대위

뭐야!

천우

진짜 이러면 안되는거 아는데 보세요!

답답한 천우. 결국 증거를 내민다. 옥상초소에서 57억 로또를 들고 찍은 핸드폰 인증샷이다.

천우

저기... 정말이라니까요... 57억 로또에 당첨이 됐다니깐요!

강대위, 인증샷을 본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
이때, 문이 열리며 집무실로 들어오는 TOD 관측병 만철(22)..

만철

충성! TOD 관측병 상병 김만철! 소초장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강대위

너 만철이 마침 잘 왔다. 너 컴퓨터 잘 하지? 너 TOD로 사진조작 알아낼 수 있어?

만철

...?? 컴퓨터랑 TOD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강대위

(사진 계속 보며) 이야, 이 새끼 이거 대단하네. 사진조작을 해?

천우

뒤로 밀어보십시오. 한 장 더 있습니다.

강대위, 의심스런 눈초리로 옆으로 밀면.. 인증샷이 하나 더 나온다.
그런데 그 인증샷은 바로 군사분계선 너머 57억 로또를 들고 있는 리용호의 인증샷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리용호를 만났을 때 천우가 증거로 찍어두었던 인증샷.
진짜 북한 군인이 제934회 로또 6/45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강대위

.....!!!!

JUMP CUT

늦은 밤, 토를 달 수 없는 확실한 증거. 핸드폰 인증샷을 놓고 강대위, 천우, 만철이 심각하게 앉아있다.
음산하게 웃는 강대위.

강대위

57억 로또가 북에 있다 이거지?

만철

아이..박병장님, 그래서 목숨 걸고 첩책을 넘으셨던 겁니까? 아..진짜 대단하십니다.

천우

야..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이거는 하늘이 도운거야..

강대위

이 비밀은 무덤 끝까지 갖고 간다.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천우와 만철.

천우 / 만철

예!

강대위

모든 전투에선 전력분석이 기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그 로또 주웠다는 북한 놈이 어떤 놈이야?

천우

개새깁니다.

강대위

개새끼?

천우

개새끼예요.

12. 북측 추진첩책. 밤

철흑 같은 어둠속, 철진이 니퍼로 철책선을 끊어 개구멍을 만들고 있다.

리용호

당과 인민을 위해 이 돈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

철진

(깽깽대며) 저도 마찬가지집네다.

리용호

기칸테 당과 국가가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이가 있네?

작업을 끝낸 철진, 리용호 앞에 선다.

철진

웁은 말씀입네다. 진심으로 리용호동무 의견에 동의함네다.

리용호

고생하시는 부모님, 기리고 가수가 되고 싶은 내 동생의 꿈..내 반드시 이뤄줄기야..

철진

저는 우리 아바이 어마이 틀니부터 바꿔 드려야 됩네다..
아주 강철합금으로 만든 스위스제 틀니로다가 싸악 바꿔 드릴겁네다.

리용호

(와락 끌어안는다) 철진 상급병사동무, 이 마음 절대 변치 말라우.

철진

모쪼록 그 남조선 간나새끼 발짝코를 넓다 갈겨서라도 반드시 임무완수하고 돌아오시라요.

리용호, 철진의 도움을 받아 철책선 개구멍을 통과, 비무장지대로 나아간다.

13. GP 추진철책 가는 길. 밤

철책선 옆,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강대위와 천우, 만철.

강대위

나 딸하나 있는거 알지?

남들 다 있는 피아노 한대가 없어요.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애가 색연필로 도화지에다가 피아노를 그려 가지고.. 술라. 술라. 술미레도..

천우

..10%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대위

하루는 와이프가.. ‘어머니 병원비 어떡해요’하는데.. 어머니 요양병원 보내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지 피아노도 없지.. 하루는 애가 그러더라. 야빠.. 우린 왜 돈이 없어요?

천우

15%..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대위

(바로 악수) 지분 15%에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 이런 소초장 없다.(손 내밀며)

천우

(떨떠름하게 손 맞잡는다) 병장 박천우..

강대위

나 양심 있는 사람이야. 음? 잘 해보자.

천우

만철야 너 숫자 뭐 좋아해?

만철

숫자?.. 뭐..??

천우

오케이 넌 7%..

만철

이런 씬..

순간 냉각되는 분위기에 만철. 눈을 이리저리 굴린다.

만철

그러니까 10. 10이라는 숫자가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고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10 이름도 10 텐 10 텐 10텐

박병장님!! 막..

CUT TO

그렇게 각자 지분에 합의하고 추진철책 통문에 다다른 세 사람.

강대위, 통문 자물쇠를 열어 주려하는데.. 벌써 열려있다.

강대위

뭐야? 이게 왜 열려있어.

만철

아.. 이거 보급관 인 것 같습니다. 급수호스가 낡아서 그거 뚫으러 자주 나갔다 오거든요.

14. 비무장지대. 밤

철책선 너머 비무장지대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호스를 점검중인 보급관 류하사의 얼굴위로..

만월 (OFF)

비무장지대 안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이나 우물지도를 알고 있는 건 보급관밖에 없습니다.

15. 군사분계선 철책선 근처. 밤

남과 북을 반으로 나눈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천우와 리용호는 치열하게 지분 협상 중.

천우

야..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니깐 얼마나 좋아? 남쪽에는 유실물 관리법이란 게 있어.

리용호

야.. 별 희한한 법이 다 있구나야.

천우

(준비한 메모 보여주며) 봐! 유실물 관리법 제4조.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보상은 5% 에서 최대 20%.. 아 얼마나 다행이야. 니가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리용호

아.. 기레?

천우

그러니까 나는 80, 너는 20..

리용호

(웃으며) 조까라우.

천우

아니! 말귀를 드럽게 못 알아먹네! 진짜! 너 그거 찾으려면 신분증 있어야 돼. 어? 니가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당첨금은 찾지도 못한다고!

리용호

당첨금 찾는 기한이 1년이라두만. 우리라고 방법이 없는 줄 알아? 사돈에 팔촌까지 남쪽에 정착해 사는 탈북민들 싹 다 뒤져보면 우리도 찾을 수 있다 이기야. 말 안 통하는 쌍간나새끼.. 협상결렬이라우!!

천우

저 개.. 아으.. 진짜...

16. 북측 추진철책 근처. 밤

철책선 근처, 철진이 개구멍을 열어주며 회담을 끝내고 돌아오는 리용호를 맞는다.

철진

어케 됐습까?

리용호

남조선 개 쌍간나 새끼들 뭐 어디 가갔어?

철진

탈북민들 뒤져보면 우리도 찾을 수 있다고 겁박을 줘도 안 됩니까?(하다가 멈칫!)

어둡속.. 총을 겨눈 채 다가오는 정치지도원 최승일(29)이다.

최승일

내레 잘못 본 게 아니라른.. 동무들은 여기서 당장 죽결심판해도 할 말이 없을 기야..

리용호

저....정치 지도원 동지..

리용호와 철진, 사색이 되는데..

최승일

총 버리라우.. 어디로 가고 싶네? 요덕 정치범수용소, 개천수용소, 하나 고르라우. 거기 가른 지난 시기에 인민의 고향을 쥐어쥔 착취분자와 종파분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네.. 고향에 온 것처럼 아주 포근할기야..

철진, 리용호를 쳐다본다. 하지만 리용호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철진

정치지도원 동지,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리용호 동무가 남조선에서 바람에 날아온 육사오라는 종이를 주웠습네다.

최승일

그거이 뭐이가?

철진

(울먹거리며) 아으.. 그.. 당첨만 되면 거금을 준다면 남조선 인민들의 고향을...

최승일

(철진에게 총을 들이대며) 간나새끼..

리용호

(앞으로 나서며) 정치 지도원 동지 그 육사오가 1등을 맞았는데..
그 육사오가 자기꺼라고 주장하는 남조선 아 새끼와 지금 등분협상 중입니다.

최승일

당첨금이 얼마가?

철진

남조선 돈으로.. 57억일네다.

최승일

간나새끼, 미제 달라로 얘기하라우!

리용호

달라로 하른.. 육백만불입네다.

최승일

(감놀) 뭐이가 어드레..?? 육...백만불??

17. GP 강대위 집무실. 밤

돌아온 천우 앞에서 만철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해한다.

만철

아니 그쪽은 대체 얼마를 주겠대요?

천우

자기네들이 무조건 90이래, 우린 10만 먹으래..

만철

아니 10! 아...나..정말 어이가 없네.. 도둑놈 아님니까! 진짜..

강대위

남북문제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개들은 늘 벼랑 끝 전술이야.

천우

협상이 이렇게 걸렸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대위

협상은 원래 붙었다 깨졌다 하는거야. 다시 끈을 이어놔야지.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강대위의 얼굴에서..

18. GP 옥상초소. 아침

야외근무초소, 강아지와 함께 각 잡고 근무 중인 신병의 귓전에 들려오는 노래. 노사연의 <만남>

노래 (OFF)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있기에~ 너무나~ 나의운명~

천우와 만철은 옥상초소에서 고배을 망원경으로 북측초소를 관측 중.

만철

이런다고 답이 올까요?

강대위, 마이크를 들고 마치 DJ처럼 멘트를 날리며 등장.

강대위

만남, 만남은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만남을 기다리는 걸까요..

답이 없을 때의 답답함은 정말 숨이 막힙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북녘 동포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우리 지금 만나~~

강대위, DJ처럼 믹싱조작도 서슴지 않는데..

노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천우

(망원경으로 북한 초소를 살펴보며) 어! 소초장님, 저저기..

더욱더 집중해서 북쪽초소를 망원경으로 탐색하는 만철, 천우, 강대위.

강대위

나도봤어. 개새끼들.

노래

휴대 전화 너머로 짓고 있을 너의 표정을 나는 몰라! 몰라!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

깜박깜박, 유리조각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북측.

고배울망원경으로 북측초소를 바라보면.. 북측인원도 최승일, 리용호, 철진. 셋이다.

천우

새로 인원이 추가됐나 봅니다.

강대위

인원?

19. GP 육상초소 / 북측 방송관측초소. 낮

천우, 망원경으로 리용호의 옆에 서 있는 뉴 페이스들을 확인한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후, 리용호와 철진이 체조를 하듯 몸으로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뭔가 손발이 잘 안 맞는 듯 간부인 듯 보이는 최승일이 단두리하는 모습이 보인다.

강대위

저 새끼들 왜 저래?

천우

(망원경으로 확인) 한글 초성같은데요..

강대위

한글 초성??

천우

(망원경으로 확인) 예...

다리를 펴고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손을 뻗기도 하고.. 두 손을 맞잡기도 하고, 양 손으로 원을 그리기도 하며.. 체조를 하듯 신호를 보낸다.

ㄱ. ㄷ. ㄱ. ㅅ. ㄱ. ㅇ.. 리용호와 철진은 지금 온몸으로 한글초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만철

어.. 저거 기억입니다 기억..

천우

어, 맞네 맞네 맞네.

만철

저.. 저건 저건 디글디글.. 기억 디글

천우

맞아!

강대위

야 임마! 만철이 너 빨리 적어.

만철

아..예..

재빨리 수첩을 꺼내 받아 적을 준비를 하는 만철.

천우

기억하고 시웁.

강대위

이응. 이응. 이응!

북측 세 사람이 水 모양을 몸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남측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천우

치웃인가?

강대위

맞아 맞아 맞아! 저 새끼들 엉덩이를 왜 자꾸 비벼..어?

20. GP 강대위 집무실. 낮

보드판에 적어놓은 한글 초성. ㄱ. ㄷ. ㄱ. ㅅ. ㄱ. ㅇ.. 강대위와 천우, 만철이 목하 고민 중.

강대위

음.. 기억하고 디글이면.. 군대?

만철

소초장님! 맞습니다! 군대 맞아요. 예! 그쪽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군대잖아요! 군대!

천우

그럼 기억하고 시웁은요?

강대위

음... 군사?

만철

(박수친다) 군대! 군사! 칙칙 맞아 들어갑니다! 예?

천우

그 다음은요?

강대위

같이??

만철

예?....

강대위

구애?...감옥?...

CUT TO

그래서 ㄱ. ㄷ. ㄱ. ㅅ. ㄱ. ㅇ.. 초성 아래.. 다양한 조합의 글자들이 채워진다.

ㄱ. ㄷ, 아래에는 고답, 급동, 공동, 그대, 고독 등이..

ㄱ. ㅅ, 아래에는 가슴, 개새, 기생, 곡성, 급사, 급수, 곡선 등이..

ㄱ. ㅇ, 아래에는 구애, 구역, 같이, 거액, 과음, 게이, 과일, 근육 등 짜낼 수 있는 조합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강대위

그대 개새 같이?

만철

공동 가슴 게이?

강대위

고답 가슴 근육?

만철

아.... 소조장님 상상력 진짜 빈약하시다.. 공동 기생 과일? 이런...

강대위

그게 상상력이나? 고독 급사 구역?

공동....?

구역??.. 그 순간, 천우의 뇌리에 번쩍! 뭔가 스쳐간다.

천우

가만.. !!

강대위

왜? 왜 그래?

천우

우리 GP에서 비무장지대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만철

뭐..통문열쇠 가지고 있는 급수담당 보급관이죠..

천우

그럼.. 재들도 보급관이 있겠네?

강대위 / 만철

..??

천우

그렇잖아요. 재들도 똑같이 겨울되면 어디선가 물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철 / 강대위

그쵸. / 그렇지.

침판에 바라보는 천우의 뇌리에 몸으로 한글초성을 보여주었던 북한병사들이 떠오른다.

플래시백. ㅅ 모양을 몸으로 표현 하는 북한 3인. 물결모양의 웨이브 동작을 하는 모습.

천우

재들이 말한 장소 나왔습니다.

천우, 보드판으로 다가가 하나씩..하나씩.. 써놓은 단어들을 지운다. 남아있는 단어들은..

강대위

공동....

만철

급수...

천우

구역....

천우, 글자들의 옆에 다시 영어로 쓴다. Joint Supply Area...

천우

줄여서 JSA..... 공동급수구역입니다.

21. 비무장지대 산길. 밤

어둠속. 산길을 올라오고 있는 후레쉬 불빛 셋.

강대위, 천우, 만철이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울창한 숲길을 헤매고 있다.

강대위

야.. 보급관이 그러 준 약도 좀 줘봐!

천우, 후레쉬를 비추면 괴발개발 상형문자처럼 보급관이 그려준 약도.

강대위

어? 이거보고 찾으라고?

만철

마음으로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강대위

마음?? 돌겠네, 증말..

이때, 천우의 불을 타고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 바람쪽을 향하는 천우. “야! 어디가?” 강대위가 천우를 부르며 따라가고.. 간헐적으로 가느다랗게 이파리들이 떨고 있는 게 보인다.

이파리들의 떨림이 있다는 건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

나뭇잎을 헤치고 들어가면.. 둥그랗고 평평한 작은 개활지를 끼고 있는.. 오래된 방공호의 입구가 나타난다.

무성한 숲으로 싸여있어 절대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곳, 바로 공동급수구역이다.

강대위

조정간 단발..

서둘러 총을 고쳐메고 앞으로 향하는 강대위 만철 천우.

22. 공동급수구역. 밤

어두운 방공호 안, 헤드랜턴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오는 강대위, 천우, 만철.

방공호 여기저기 촛불이 밝혀져 있고, 저만치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최승일, 리용호, 철진이 있다.

최승일

찾아온걸보니 삶은 닭대가리는 아니구만 기래?

소총을 계속 겨누고 북한군 쪽으로 다가가는 남한 병사들..

최승일

(용호, 철진에게) 총 내리라우.

강대위

(천우, 만철에게) 총 내려

최승일

그럼 회담에 임하기에 앞서 유엔사령부에서 정한 비무장지대 원칙대로 무기는 각자 수거토록 함세다.

강대위

좋소.

CUT TO

각자 무기를 수거, 삼각형 모양으로 거치해 둔 방공호 안.

비어있는 탄박스로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어 나름 회담장의 꼴을 갖춘 공동급수구역.

남쪽대표로는 강대위와 천우, 만철이.. 북측대표로는 최승일과 리용호, 철진이 마주 앉았다.

남과 북의 병사들, 팽팽하게 서로를 노려보며 기싸움을 벌인다.

최승일

엄연히 우리 소유로 되어있는 육사오라는 것을, 유실물 관리법이니 뭐이니 개 뽕다구 같은 논리를 개지고,

혼자 다 치먹갸다 발광하는 도둑놈 심보를 호되게 고쳐주려 나왔소.

강대위

육사오가 아니라 로뽕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

리용호

양키말 쓰지 마시라요! 여기 남조선 땅이 아니야..

강대위

하나만 물어 봅시다. 로또 세금이 얼마줄 압니까?

최승일

세금?

강대위

내 이럴 줄 알았어. 속달된 조교 앞으로.

만철

앞으로!

만철, 미리 준비해온 차트를 착악! 펼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차트병 글씨로 일목요연하게 세금을 정리해놓았다.

만철

총 당첨금액 57억 6천 5백 77만 2844원.. 3억원까지는 기타소득세 20%에 주민세2%, 그래서 합이 22%...
3억 초과부터는 기타소득세 30%에 주민세 3% 그래서 합이 33%....

일목요연, 철두철미, 완벽하게 정리해온 차트를 북측에 내민 강대위, 흡족하고.

만철

소득세와 주민세를 뺀...실 수령금액은 39억..1천 4백 95만 9762원입니다.

강대위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80프로가 어땡고 90프로가 뭐 어땡다구요?

최승일

철진동무, 보여주라우.

하면, 철진 투박하게 보자기로 째 뭔가를 꺼내놓는다.

강대위

뭐니까? 도시락입니까? (크큭)

하지만 그것은 도시락이 아닌 빔 프로젝트.
좌르르.. 빔 프로젝트가 투사되면.. 그래픽까지 가미된 로또세금을 설명한 철진의 자료.

강대위 / 천우 / 만철

.....

철진

그냥 알아보기 쉽게 힘센 점으로 정리해 봤습네다.

강대위

힘센.. 점?

철진

양키들은 파워포인트라고 부르더만요.

철진

우리 인민군대는 말로 안함네다. 그림 한 방이면 되는데 뭘 귀찮게 말로 하고 작대기 쓰고 그릅니까?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한 북측, 웃는다.

최승일

우린 우리의 의견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으니 그케 아시라요.

강대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최승일

기카쁜.. 더 이상 얘기가 없다.. 다들 일어나라우!

벌떡! 일어서는 북측, 회담장을 떠나버리겠다는 제스처.

강대위

또..또또또또! 또 그 버랑 끝 전술..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 쫓 거 같아?
그리고 그 로또가 왜 당신들 거야! 그 로또! 어차피 갖고 있어봐야 당신들 찾지도 못해!

천우

당첨금을 어디서 찾는지 알긴 해요?

최승일

(다시 앉으며) 협동조합에서 찾는거이 아이오? 농업협동조합.

푸하하하, 남측 군인들 배꼽을 잡는다.

만철

아저씨.. 협동조합이 아니고요. 농협이라고 은행에서 찾는 거예요. 은행..

강대위

8대 2! 정말 많이 양보했습니다.

리용호

그 거저먹겠다는 심보는 미제 승냥이들한테 배웠어?

강대위

그 로또를 당신들이 발행했어? 대한민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재산이야!
지금 당신들 불법으로 우리 재산 점유하고 있는 거라구! 알아?

최승일

(벌떡 일어나) 뭐이가 어드레? 불법점유?

천우

당신들 아오지 탄광에 안 간걸 다행인줄 알아!

리용호

(벌떡 일어나) 아오지 탄광! 이 중간나새끼! 너! 말 다했어?!

천우

(버럭) 그래! 다했다 왜! 어쩔건데!

철진

(벌떡) 이런 쌍간나새끼들, 종게종게 할라고 했더니만 안 되갓구만!

만철

(벌떡) 종게 안하른 뭐 어쩔건데! 해보자는 거야 뭐야!

최승일

간나새끼들! 우리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 놈의 욕사오! 당장 불태워 버리겠어!

리용호 / 철진

태워버리겠어!!

23. 공동급수구역 한쪽. 밤

INSERT

밤이 깊어가는 공동급수구역 외경.

CUT TO

공동급수구역 한 켠, 대책회의중인 복측을 의식하며 남측 속닥속닥 회의 중.

강대위

저 새끼들 진짜 로또 태울 수도 있어.

만철

하...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렇게 무식한 놈들 처음 봤습니다.

천우

우리 재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죠.

강대위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우리 켄테 왜 우리가 10프로야?

천우

어차피 로또만 돌려받으면 그만이지..,
생각해보세요. 로또가 우리 손에 있는데 지들이 뭘 어쩔 건데요?

강대위, 천우를 쳐다본다. 우문현답이다.

강대위

그거네. 그게 정답이네.

24. 공동급수구역 한쪽. 밤

공동급수구역의 다른 한켠, 복측도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회의 중이다.

철진

정치지도원 동지. 그 욕사오 정말 불태우실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승일

그럼 어카란 말이네? 저 버려지 같은 새끼들한테 고개를 숙이란 말이네?

철진

고지 10%라도 받을 걸 그랬습다.. 그것만 해도 우리한테 큰 돈 아님까.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리용호, 최승일, 철진.

25. 공동급수구역. 밤

방탄조끼를 비롯한 군장도 벗어놓고 나름 편안한 군복차림으로 본격실무회담에 들어간 남과 북.

최승일

8대 2!! 더 이상 양보는 없어!

강대위

아니 8대 2라니! 7대 3!

최승일

누가 7이가?!

강대위

당연히 그쪽이 7이지!!

옹? 우리가 7이라고? 급격한 남측의 제안에 북측대표단, 어리둥절하다.

리용호

다시 한 번 말해 보라.. 우리가 7?

어두운 낮빛의 만철과 천우.

강대위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결단했다 이거야.

리용호

진짜지? 고거이 거짓부렁 아니지?

강대위

그럼.

철진

합의서라도 한 장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승일

써야지. 당연히 써야지.

CUT TO

즉석에서 남북합의서를 작성하는 양 진영. 서로 한 줄씩 읽는다.

최승일

육사오 합의서, 조항 1. 당첨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7, 대한민국 3의 비율로 배분한다.

강대위

조항 2, 천제지변이 일어나도 무조건 지킨다.

리용호

조항 3, 북과 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국제사법재판소를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천우

조항 4.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남과 북이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합의서에 지장을 찍고 교환하는 양 진영. (시간경과로 촛불이 많이 꺼진 상황)

로또 보관함에서 조심스럽게 로또를 꺼내는 최승일.

최승일

(한쪽 끄트머리를 잡은 채) 명심하라우, 7대 3, 아니른 전쟁이야.

강대위

(한쪽 끄트머리를 잡는다)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한 번 믿어 봐.

천우,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본다. 이제 저 종이만 넘어오면 끝이다..

그렇게 화해 모드에서 로또가 전해지려던 순간...

리용호

잠깐.. 기칸대 말입니다... 만약에.. 육사오만 넘어가고... 돈은 안 갓다주면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흠칫 놀라는 북측. 얼굴색이 변한다.

최승일

이 간나새끼들! 기케서 7대 3 체의한 거이가?! 공공이가 있었구만 기래!!

강대위

놔..

최승일

이 간나새끼.. 니가 놓으라우.

강대위

놓으라고 했지? 놓으라고 했다?

최승일

셋 셀때까지 안 놓으믄 내레 이 육사오 찢어버리갓어.

강대위

그래, 그냥 찢자..

최승일

하나!

강대위

(더 박력있게) 둘!

강대위 / 최승일

셋!!!!

강대위와 최승일이 동시에 로또를 놓아버리고, 깃털처럼 로또용지가 살랑 살랑 테이블 위로 떨어진다.
순간, 남북측은 서로 눈치를 보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로또를 향해 몸을 던진다.
마지막 남은 촛불이 꺼져버린다. 칠흑 같은 암흑 속 으로 변해버리는 공동급수구역.

우당탕탕! 각자 총을 챙기며 난리가 나는 와중에..
어둠속,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소리치는 남과 북의 군인들. 하지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강대위

빨리빨리! 로또부터 찾아!! 빨리!

리용호

육사오 챙기라! 육사오 챙기라!

최승일

이 중간나 새끼들! 다 썩 버리갓어!

강대위

썩바! 이 새끼야! 썩바!

천우

만철아 어딴어??

어둠속, 딸깍, 만철이가 헤드랜턴을 켜다.
헤드랜턴, 천천히 올라가면.. 강대위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병사들..

강대위

불 꺼! 불 꺼!

만철

(놀라서)오오...

황급히 헤드랜턴의 불을 끄는 만철.
딸깍, 다시 칠흑 같은 어둠속에 잠기는 공동급수구역. 암전 상황

최승일

소리가 나른 위치가 파악되니까네! (퍽! 퍽!)

강대위

지랄하고있네!! (퍽! 퍽!)

만철

소초장남.. 어디게세... (퍽!!!)

강대위

나 찾지 말라고 이 색까!!! (그 위로 퍽! 퍽! 퍽!)

만철

잠깐!...잠깐!.....(퍽! 퍽!)

그렇게 어둠속에서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벽에 붙어있던 앞전구들이 주욱.. 켜지며 불이 들어온다.
우스꽝스런 자세로 섞여있는 남과 북의 병사들 서로 엉켜 있다 혼비백산하며 각자 진영대로 뭉친다.
스위치를 켜며 등장한 류하사, 공동급수구역은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는 방공호였던 것이다.

보급관

(여유롭게 들어오며) 아! 여기서 뭐 하십니까? 불을 켜면 되는데.. 깜깜한데 뭐 보이십니까?
아.. 이 부자연스럽고 대책 없는 감정들 아 좋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자 사진 한 번만.. 좋습니다.

남북의 병사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멍하니 류하사를 쳐다보고 있다.

보급관

(북측 병사들을 향해) 조금만 이쪽으로.. 아.. 좋습니다.

철진

(자세히 보더니) 남조선의 보급관 행님 아니아요?

보급관

어? 야! 니가 여기 웬일이고?

철진

예전에 우리 급수관 막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움 많이 줬습니다.

뉴페이스 보급관의 등장으로 약간 어리둥절한 분위기 속에서..

보급관 두리번거리다가 테이블 위에 로또를 발견한다.

보급관

(로또를 들어올리며) 이진 뭘니까?

남북한 병사들 모두 로또를 든 보급관을 보고 당황한다.

CUT TO

시간경과, 테이블 양쪽으로 흥분을 가라앉힌 남과 북의 병사들이 다시 마주 앉았다.

테이블 가운데 중재자처럼 보급관이 앉았다.

보급관

대충 진행상황은 들었고.. 박병장, 니 이거 얼마주고 샀어?

천우

...안 샀는데요.

보급관

안 샀다꼬?

천우

주웠는데...

하자, 북측의 군인들 한바탕 난리가 난다.

최승일

야.. 이거이..

강대위

(천우에게 속삭이는) 야! 조용히해!

리용호

뭘? 좇아? 니 새끼도 주워놓고 그걸 소유권을 주장해? 이 쟁간나 새끼!

보급관, 양쪽을 중재하며,

보급관

자자자! 제 생각에는 이 로또는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든 평화의 로또입니다.

5대 5. 어떻습니까?

리용호

뭘, 5대 5면 우리도 나쁘지 않디..

보급관

깔끔하게 5:5 정리됐죠?

최승일

좋소!

강대위

오케이..정리 끝..

보급관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북쪽에서는 남측에게 로또를 주고, 남측은 그 1등 당첨금을 찾아오겠지요.

하지만 그 찾아온 돈을 북쪽에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서로 어떻게 믿어요?

북측과 남측, 서로를 바라본다. 그 말이 맞다. 서로를 어떻게 믿겠는가..

보급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난 듯) 이진 어때요.. 스파이영화처럼 포로를 맞교환 하는 겁니다.

기한은 1주일, 북쪽은 로또를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

그 찾아온 돈을 북쪽에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명씩 맞교환한다.

최승일

기카쁜 되잖구만..

순간, 특, 던져듯 깔리는 천우의 한 마디.

천우

남과 북으로는 누가 가요?

남과 북의 병사들, 서로를 쳐다본다. 그 질문엔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할 수 없다..

누가 갈 것인가는.. 정말..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천우는 강대위와 만철을 바라보지만 둘 다 무언
으로 천우가 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표정을 짓는다.

최승일

아이! 기레기레 아! 누가가든 좋다 이기야!

기칸데 만에 하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로 어케 연락할 거이가?

CUT TO

보급관, 방공호 한쪽에서 양쪽에서 갈라져 나온 전선 두 가닥을 찾아 보인다.

보급관

어후... 허리아... 이야 살아있네 됐다.

이 공동급수구역에 6 25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비상연락망입니다.

그 TA-312라고 일명 딸딸이라고 부르는 전화기입니다.

근데 그 북측에서나 남측에서나 그 GP 어딘가에 요 전화기가 있을 겁니다.

보급관, 전선을 연결하면.. 지직, 지지직.. 전기를 타고.. 남과 북이 연결된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다.

26. GP 강대위 집무실. 낮

강대위, 천우, 만철 모여서 북으로 넘어갈 인원에 대해 논의 한다.

강대위

만철이 너 고향 어디야?

만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강대위

나도 서울 구파발. 박병장 너 강원도잖아.

천우

강원도라고 같은 강원도가 아니에요..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강대위

그럼 소조장인 내가 가리? 어? 애 만철이 애는 우리부대 소속도 아니고, TOD 관측병 파견이잖아 애는.

만철

예! 그렇습니다.

강대위

일주일만 갔다 오는 거야.

천우

(울고 싶다) 아이... 아무리 그래도 이견 아니죠. 제가 북한에 어떻게 가요..

저기..가워바워보 해요. 가워바워보, 남자답게 딱 한판만!

만철

아이! 박병장님! 무슨 가워바워보를...

천우

(억지로 만철이 손을 끌며) 빨리 내내!! 가워바워보 해! 가워바워보! 딱 한판만.

강대위

딱! 한판!

천우

예! 딱 한 판! (만철에게) 빨리 내!

만철

네에..

CUT TO

그래서 세 사람은 가워 바워 보를 한다. 가워! 바워! 보!.... 그런데 천우가 걸렸다.

천우

아아아아!!!!!! (무릎꿇으며) 잠깐만 더해요! 한 번만 한번만! 예? 딱 삼세판!

만철

아이! 박병장님! 왜이러십니까 마지막이라 안그러.. 그게 어딴습니까?

천우

만철아 미안해.. 한 판만! 한 판만.. 이번에 지면 제가 진짜 가겠습니다.

강대위

진짜 딱 마지막 한 판이야!

천우

예, 진짜 딱 한판! 진짜 가겠습니다.
(만철에게) 야! 미안하다! 마지막 마지막.

강대위, 선심 쓴다는 듯 천우의 요청을 들어주며 가위모양으로 손을 만들어 만철에게 보여준다.
만철도 강대위의 의도를 눈치 채고 가위바위보에 응한다.

강대위

니가 해! 가위바위보.

천우

(떨리는 목소리로) 예! 가위.. 가위 바위 보!

그래서 다시, 가위! 바위! 보!.... 또 천우가 걸렸다. 쓰러지는 천우.

만철

(천우 옆에 쭈그려 앉으며) 박병장님. 이진 운명입니다.

천우

(눈물을 흘리며) 하아..

27. 북한군부대 연병장. 낮

‘갑히 담벼들면 죽음만이 차려질 것이다!’ 호전적인 표어 뒤로 스우.. 등장하는 보위지도원 김광철(34).
한눈에도 인상 더럽게 생긴 김광철 앞에 열과 오를 맞춰 병사들이 연병장에 도열해있다.

김광철

종간나 새끼들! 야! 똑바로 못 하잖어!! 너희들 평소 뭐 하고 있는지 내 다 보고 있어..
땀방울이 강물처럼 흐르게 박차를 가하라.
그렇게 눈깔을 굴러대면 몸뎡이가 훨훨 날아다니네? 충성스럽게 하라! 충성스럽게!

육두문자를 써가며 살벌하게 정신교육을 하는 김광철을 바라보며..
최승일, 리용호, 철진이 둔덕 뒤에서 소곤소곤 얘기를 나눈다.

철진

불가능합니다. 보위지도원 동지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김광철

(멀리서 들리는 소리) 야! 너희들! 눈깔은 말튀기가? 와 똑바로 못 쳐다봐!

최승일

기니까 머리 좀 짜보라우.. 내일 모레면 결행일인데 무슨 방법을 찾아야할 거 아니겠어.

철진

같은 내부반에서 한 이불 덮고 자지만 누가 보위지도원 동지의 꼬나풀인지 모른다 말임다.
우리 초소에서 보위지도원 동지를 속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묘수가 생각나지 않자 절망하는 최승일과 철진, 리용호

리용호

한군데 있지비. 보위지도원 동지의 살벌한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28. 북한군부대 농장. 낮

북한 군부대 농장 전경. 북한의 군부대는 이렇듯 자력갱생으로 옥수수와 감자재배는 물론, 오리와 토끼 등을 키우는 농장이 있다.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젖소의 젖을 짜고 있는 여인의 손.
젖소의 몸통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내뿜는 대사들은 꽤나 전투적이다.

연희

최고로 인정받는 개미가 어떤 개민줄 아네? 로동개미야.
한번 뿐인 소재끼 인생. 소켓 생산도 전투적으로 하는 거야.
하루에 100킬로씩 소켓을 짚죽 짜내다보른 공화국 최고의 로동젖소가 되는 거디.. 알간?

영철

연희동무! 언제 오셨시오?

돌아보는 어여쁜 여인. 그녀는 바로 천우와 입씨름을 벌였던 대남방송의 주인공 연희(21).

연희

(반가워하며) 영철동무!! 웬 땀돼지새끼네?

영철

얼마 전에 부대근처에서 에미를 잃었는지 혼자 울고 있길래 주워왔습니다.

연희

가도 키워서 먹을 거가?

영철

청정지역 비무장지대에서 멧돼지 고라니는 훌륭한 계란소공급원 아녜니까?
근데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고운 걸 잡아먹을 수 있을지...

연희

거, 한 달만 키우른 토실토실 근수 좀 나가겠대야.

하는데 저쪽에서 리용호가 다가온다.

연희

(환한 미소) 오라버니!! 오라버니!
웬일입니까?

달려가는 연희, 그녀는 리용호의 여동생이다.

리용호

(연희의 머리를 정돈해주며) 자. 아휴.. 뭐한다고 머리가 이렇게..

29. GP 외경. 낮

사다리에 올라 신병과 함께 '환영! 437GP 1주일 체험병' 플랜카드를 걸고 있는 강대위.

강대위

아! 신병. 야! 그쪽 올려봐!

신병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강대위

위로 들으라고!
(손을 위로 드는 신병을 보고) 손 말고 줄을 들으라고! 땡기라고! 씨...

30. 몽파쥬

내무반에서 TV를 보는 천우, 북한 관련 TV 프로그램 <남북의창>을 보고 있다.

출연자들의 북한말을 따라 하기도 하고, 받아 적기도 하며 열심히 준비에 들어간다.

TV속의 소녀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덴데..
어... 아저씨들이 잘 배아주고 말도 순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천우

(소녀의 말투 따라하며) 굉장히 무섭덴데 무섭덴데..
순하니까... 배아... 아하... 신병!

신병

이병 김현수!

천우

물 한잔 갖고 오라우.

신병

....???

CUT TO

복측 행정실, 최승일과 리용호, 철진도 머리를 맞대고 한창 준비 중.

철진

동무래 농담을 던졌시오, 근데 재미가 없어. 응? 반응이 안 좋아. 이럴 때 남조선에서 쓰는 말은?

리용호

고거이 아까 한건데.. 그...갑.. 갑분교? 갑분교!

최승일, 와락! 달려들어 리용호의 목살을 잡는다.

최승일

갑분싸야! 갑분싸! 갑분교는 갑자기 분위기 교장선생님이고! 동무래 이카른 죽는 기야!
(목살을 풀어주며) 다시 해보라우!

철진

리용호 동무, 다시 한 번 해보자요. 문송하다가 뭘때까?

리용호

문과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철진

잘했시요! 다음.. 혼바비언!

리용호

혼바비언... 호... 혼자 밥 먹는 사람...?

철진

잘했시오. 혼코노는 뭘네까?

리용호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사람..

철진

잘했시오, 자 기림.. 번달번죽은 뭘네까?

리용호

(이건 모르겠다) 번데기를 달달 볶아서..

최승일, 다시 외락! 달려들어 리용호의 먹살을 잡아 쥔다.

최승일

번달번죽! 번호를 달라고 조르면 번호 줌! 동무래 이카른 정말 죽는기야!!!!!!

CUT TO

수송대 담벼락 아래, 리용호가 종이조가리에 적어놓은 남조선 신조어를 외운다.

리용호

고거이.. 이생망. 이생 .이생망

렐루..리얼루..고거이 진짜루..

마상..마음에 상처.

행여 증거가 남을까 외운 종이는 우적우적 찢어 먹어버리는 리용호.

CUT TO

식당 담벼락 아래에서 천우도 중얼중얼 암기를 한다.

천우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웅한 인민군 장병들 동포 형제 여러분... 하아...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FLASH BACK

공동급수구역에서 천우에게 조언을 하는 리용호.

리용호

공화국의 인민군대라면 신년사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기야. 치열하게 외우라우.

리용호의 조언을 받아 천우가 외우는 건, 김정은 새해 신년사.

천우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웅한 인민군 장병들 동포 형제 여러분..

CUT TO

해가 저물어가는 비무장지대, 애타게 새끼를 찾는 어미 멧돼지가 우워억~!!! 괴성을 지르며 달려간다.

CUT TO

해질녘, 천우가 GP옥상초소에 올라 북한쪽을 바라본다. 리용호도 철책선 너머 남쪽을 바라본다.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디데이를 기다리는 두 병사, 서편 하늘이 붉게 물들어간다.

31. 공동급수구역. 밤

미리 준비한 군복을 바꿔 입은 천우와 리용호. 천우는 북한 군복을, 리용호는 남한 군복을 입는다.

천우는 '최정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북측의 농장관리에 배속된 신병으로 위장되고..

리용호는 '송민규'라는 이름으로 타 부대에서 파견 나온 GP 일주일 체험병이 된다.

강대위

박병장 모자 한 번 써봐.

리용호

(리용호 모자를 보고) 잘 어울리는구만 기래?.

.

천우

(리용호 모자를 보고) 어..일병으로 가네?..

모처럼 웃고 경쾌운 분위기.

경건하고 엄숙하게 남과 북의 병사들이 로또 전담식을 갖는다.

최승일

믿을 수 있겠디요?

강대위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겁니다.

최승일

야.. 오늘같이 기쁜 날, 술이 빠질 수 있겠어? 철진동무!

철진

(폼에 감춰온 술을 한 병 꺼내며) 공화국에서 제일 맛난 철죽술을 준비해 왔지비!

강대위

그럴 줄 알고 우리도 안주거리를 준비해 왔지비!

만철

대한민국 PX 최고 인기상품들만 준비해왔습니다!

만철, 족발, 편육, 맛다시등 PX안주거리를 테이블레 쏟아 놓는다.

이야~ 하고 감탄하는 북한의 병사들.

CUT TO

만철이가 맛다시 제조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북한 병사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만철

자 이렇게 맛다시를 적정량 넣어주고요.. 삭~ 뭉어서
주물주물.. 조물조물 이제가 포인트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 끝을 (입으로 뜯어낸 뒤에) 그런 다음 쭈욱!

이야~북측 병사들 감탄한다.

만철

이게 바로 우리 지친 병사들의 입맛을 돌아주는 (한 입 베어먹고) 맛다시~

최승일

취보라우.. (받아들고 한 입 먹어본다)

CUT TO

이심전심, 주거나 받거나 남과 북의 병사 간에 술잔이 오간다.

최승일

우리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여기까지 오는데 누구 공이 가장 큰 줄 압니까? 바로 이 방공홈니다.. 공동급수구역.

강대위

가만있자.. 북에는 관문점이 있고, 남쪽에는 평화의 집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평화의 뒷문이네!

최승일

평화의 뒷문이요? 고거이 말이 되는구만 기레! 앞으로 여기는 평화의 뒷문입니다!

한바탕 웃으며 정겨운 분위기.

최승일 / 천우 / 만철 / 강대위

한번 부딪치자! / 건배 / 건배 / 자, 건배~! 카 좋다!

CUT TO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인 공동급수구역 입구 개활지.

정확하게 개활지를 반으로 나눈 군사분계선 양쪽으로 남북한 병사들이 축구선수처럼 입장 한다.

군사분계선을 네트 삼아 남과 북의 병사들이 우유곽 족구를 한다.

강대위

빨리 차 빨리! 만철.

만철

마이! 마이! 마이!

천우, 세팍타크로 기술로 아즈아~!! 스파이크를 먹이면..

리용호

어이~ 너 방금 다리 넘어왔서..

천우

뭘 넘어와?! 위에서 찾는데?!

리용호

(씨익) 뭘 그렇게 놀레네? 남조선 대통령도 기렇게 관문점 넘어온 거 아니겠어?

천우

아이~ 아아이~

강대위

자 그럼 이제 세트스코어 1:0 이제 자리 바꾸자!

만철

어! 잠깐! 잠깐.
이걸 바꿔요 진짜? 여기 북한인데...?

최승일

밤샘끼야?? 넘어가자우..

강대위

아이 그래 넘어가..

천우

(점프하며) 아잇!

강대위

오케이! 오케이! 집중!
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영장이야 너!

달빛 아래, 우유팩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하나 되는 남과 북의 청춘들. 밤이 저물어간다.

CUT TO
어느 정도 무르익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공동급수구역 안.

강대위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최승일

조선 나이로 스물아홉입니다..

강대위

난 서른둘인데..

최승일

(뭇마땅한 듯) 어이.. 형님이시구만요.. 거 말씀 편하게 하시라요.

강대위

그렇까? 동생이 한 잔 따라라.

최승일

예... 형님.

강대위

근데.. 그 출생신고가 많이 늦었나봐?

최승일

(웃다가 정색하며) 제때 했습니다.

이들의 뒤쪽, 계단에 앉아 심각한 천우에게 술을 따라주는 용호.

리용호

박천우 병장,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네?

천우

농장 차릴 거야.. 젓소농장. 나 축산학과 나왔거든..

리용호

젓소농장?

천우

젓소들은 젖을 짜기 위해서 평생을 임신상태로 있어야 한다는거. 얼마나 비동물적이야.
그래서 난 결심했어. 젓소들한테도 산후조리가 필요하다.. 그런 농장을 만들꺼야..

리용호

...

천우

(술 따라주며) 리용호 하시는 부자 되면 뭘 할 거야?

리용호

나야 뭐 이것저것 할 거 많디. 아바이 시계도 사드리고,
그리고 노래 잘하는 예쁜 내 여동생..

천우

여동생? 예쁜 여동생이 있었어?

리용호

(웁쩍) 남동생! 남동생! 뭐라는 거이가!.

리용호, 무마하려는 듯 갑자기 자리를 뜬다. 무안해서 머리만 굴적이는 천우.
철진과 만철은 나란히 앉아 만철의 핸드폰을 보고 있다.

철진

남조선 TV, 인터넷.. 거기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 어떤 모략질들을 하고 있나
하루 종일 감시하는 게 내 임무디..

만철

오.. 나랑 비슷하네. 나도 모니터로 하루 종일 감시하거든..
그럼 인터넷 TV 이런거 많이 보면 걸그룹도 아나? 아니다.. 모르겠지..?

피식 웃는 철진. 만철의 핸드폰으로 노래를 찾아 터치!
음악이 시작되면 벌떡 일어나 흥얼거리며 걸그룹 안무를 추는 철진.

노래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You Ready
그 날을 잊지 못해 babe 날 보며 환히 웃던 너의 미소에
홀린 듯 I'm fall in love. But 너무 부끄럽에 (난 그제)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 철진. “잘추네. 뭐야 얼마나 춘거야?” 만철도 흥이 난다.
순간 불안한 리용호 “철진동무! 그만하라우! 철진동무!” 말리려한다.
뒤편에서 철진을 노려 보는 최승일이 보인다.

노래

한마디 말도 못해 babe I wanna you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걸을 땀뭇게 해 Just only you 굳게 닫힌 내 맘이 어느새

하는데, 찬물을 끼얹듯 나직이 깔리는 최승일의 목소리.

최승일

지금 뭐하는 거이가!

최승일, 철진에게 위압적으로 다가간다.. 긴장하는 모두들, 철진은 오들오들 떠는데...

강대위

야. 승일이! 최승일!

최승일

이 간나세끼.. 미제 양키물이 단단히 들었구만 기레.. 사상투쟁 한 번 해야갓어?

사상투쟁이라는 말에 얼어붙는 철진.

철진

저.. 정치지도원 동지..

“야!” 버럭 소리지르는 최승일.

강대위

야야 승일이..

최승일

용호동무.. 다시 한 번 틀어보라우

리용호

예?..

최승일

틀어보라우!

움짤거리며, 만철의 도움을 받아 다시 노래를 재생하는 리용호

노래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of you.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매일 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리워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깜짝 놀랄 최승일의 반전.
이내, 최승일과 철진이 안무를 곁들여 함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노래를 부른다.

노래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하루가 멀다 하고 Rolling in the deep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Rollin'

최승일

다들 뭐하는 거이가! 땀비라우!

천우

자. 같이해! 같이! 같이!

만철

(쭈뼛거리며) 상병 김만철..

철진

용호동무! 들어오시라요~

강대위도.. 만철도.. 천우도.. 리용호도 뛰어들어 함께 춤추며 노래를 부른다.

32. 북한군부대 연병장. 아침

북한 군인들에 섞여있는 천우의 얼굴에서.

선임 군인

고난을 이겨내어 더 좋은 락원을 건설하자!

북한 군인들

고난을 이겨내어 더 좋은 락원을 건설하자!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들에 섞여 구호를 따라하는 천우, 당황스럽다.

33. GP 식당. 낮

리용호가 양손에 음식들을 들고 우적우적 밥을 먹는다.

북에서도 전방은 보급이 팽참은 편이었지만, 풍족한 남쪽의 진수성찬엔 비할 바가 못 된다.

리용호를 바라보는 식당의 남측 장병들.

34. GP 강대위 집무실. 밤

강대위와 만철이 다부진 표정으로 마주 섰다.

강대위

GP근무의 그 특성상 한 번 배치되면 3개월 동안은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잘 알고 있지?

만철

예 알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강대위

많이 고민 했다. 유통기한 1년 넘은 썩은 우유를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게 해야 되나..

만철

...

강대위

하지만 깔끔하고 상쾌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니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팔 하나를 부러뜨려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만철의 시선으로 주욱 늘어놓은 연장들. 망치, 오함마, 곡괭이, 아령, 야구방망이, 볼링공.. 기타 등등.

강대위

땡기는 걸로 하나 골라봐.

만철

뭘가 제일.. 덜 아플까요?

강대위

아프긴 다 아플걸?

만철

(꿀꺽)...

강대위

본부중대 의무장교가 동기라 미리 애긴 해 뒀으니까.. 밖으로 나가면 바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될 거야.

딱! 한 달만 김스 하는 거야. 알았지?

만철

충성!

비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하는 만철과 그 경례를 받아주는 강대위.

이내, 어떤 물건으로 만철을 팔을 부러뜨릴지 서로 고민한다.

강대위

(볼링공을 들어올리며) 이거?

만철

아니..아니...

강대위

(곡괭이를 들며) 그럼 이 이걸로?

만철

아니... 왜???

강대위

그래, 편하게 골라라.
망치? 어. 한방이지. 돌! 깔끔하겠다.

책상위에 놓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며 고민하던 만철, 그중에서 벽돌을 집어서 강대위에게 조심스럽게 건넨다.

강대위

짱돌로?

순간 마음이 바뀌었는지, 벽돌말고, 소총 개머리판을 강대위에게 건네는 만철

만철

(소총 개머리판을 건네며) 아니..나 이거..이거..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강대위

알았다.. 미안하다.. 하나.. 돌!

만철을 팔을 내려찍는 강대위!

35. GP 전경. 밤

늦은 밤까지 불 밝힌 437 GP 강대위 집무실.
그 위로 팻~!! 우직~!! 허각~!! 소리 들려온다.

36. GP 위병초소. 아침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군용구급차가 위병초소를 빠져나온다.
부러진 왼팔에 부목을 동여맨 채 트럭에 타고 있는 만철. 저 멀리 손을 흔들어주는 강대위를 바라본다.

INSERT
행정실, 팔이 부러진 만철이 강대위 앞에 섰다.

강대위

로또 어디다 보관할 거야.

만철

지갑에 잘 보관하겠습니다.

강대위

(도리도리)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그러다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하며, 뭔가를 꺼낸다. 그것은 앞섶에 비밀주머니를 달아놓은 트렁크 팬티.

강대위

그래서 준비해왔다. 짝짝이를 붙일까 했는데.. 아무래도 지퍼가 나올 것 같아서..

팬티에 주머니, 거기에 지퍼까지 달아놓은 혁신적인 강대위의 발명품이다.

CUT TO

힐끔거리는 구급차 운전병의 시선으로.. 옆에 앉은 만철이 자꾸 바지 앞섶을 매만진다.
운전병, 바지 가운데를 주무르는 이놈이 무지 신경 쓰인다. 공교롭게도 차안에는 ‘성병감염 특별계도기간’ 붙어있다.
만철을 태운 트럭, 탈탈거리며 437 GP를 빠져나간다.

37. 북한군부대 연병장. 낮

북한 군인들이 연병장에서 특수격파 훈련중이다.
통나무 내려치기, 기왓장격파, 벽돌차력, 각목격파 천우의 눈에 온통 무시무시한 장면들이다.

선임 군인

그 어떤 상대도 일격에 족탕 쳐버리는 일당백의 혁명전사, 무적의 강군!
무쇠 같은 체력! 펄펄 나는 싸움꾼!

북한 군인들, 알전구를 매달아놓고 손가락으로 부숴버리고, 맨몸에 각목격파를 하고 있다.

선임 군인

적들의 아성에 번개같이 돌입하여 혼자서도 적 백놈천놈 무자비하게 족쳐버릴 수 있는!
일당백의 공격정신이 바로 특수격파입니다.

이런 훈련은!
화강암을 아랫배에 놓고 대망치로 일격에 격파하는 훈련이다.
이번에 새로 배속된 신병이 있다던데.. 뉘기가? 뉘기가?!

북한 병사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천우는 침만 꿀꺽...

선임군인

신병!!
나오라우.

천우,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마지못해 손을 들면..

선임군인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단전에 힘을 딱 주고! 냅다 아랫배로 돌덩이를 까부수는기야!

천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난감하다. 그 순간..

천우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웅한 인민군 장병들.. 형제 동포 여러분!

선임군인

...?

천우

오늘 우리 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노동으로!

선임군인

...!!!

천우

지나간 한해에 자신들이 이뤄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선임군인

(감동의 물결) 지금 기건.. 우리 위원장 동지의 신년사 아닌가!! 아니 기결 다 외운거야??

선임군인

땃들 하고 있네! 박수 안 치네! 박수치라우~!!

북한군인들, 천우를 향해 열광적인 박수를 보낸다.

천우는 열광적인 반응에 위기를 모면했나 싶지만..

선임군인

그래.. 이제 깨라우.

천우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임군인

알았으니까니.. 어서 깨라우.

천우

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선임 군인

다치면 된장 바르면 되지.. 냅다 깨라

겁에 질린 천우. 오함마를 든 북한 병사가 천우 배에 올려져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내려친다.
'으아아!!'

최승일

멈추라우!! 당장 멈추라우! 지금 뭐하는 거이가!!

구원병처럼 등장한 최승일의 등장으로 훈련은 일시정지.

선임 군인

(경례 척!) 정치지도원 동지! 기초군사교육 훈련 중이었습네다!

최승일

저 신병은 농장으로 배속됐어! 격파훈련 따윈 필요 없다 이기야!

선임 군인

아.. 기렸습네까?

이미 깨진 돌 조각과 함께 고통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천우.

38. GP 내부반. 낮

각자 불일을 보는 병사들, GP체험병 리용호는 신경도 안 쓴다. 내부반내에 정수기를 보며 신기해하는 리용호.

리용호

이거이 뭐이네, 물을 왜...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신기해하며 물을 먹어보는 리용호. 물맛도 훌륭하다.
그런데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려온다. 성질 더러운 고참 하나가 신병을 갈구하고 있다.

고참

야! 신병!

신병

이병! 김현수!

병사1

야야 나가. 나가! 나가라고.

고참

하... 오늘까지 담아놓으라 그랬지!

신병

죄송합니다!

고참

죄송?! 화.. 이걸 그냥...!!

리용호

(혼자말로) 간나세끼!

병사2

이상병님 담배 한 대 피러 가시죠.

병사3

나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선임병의 군화를 닦는 신병.
가만히 신병을 바라보던 리용호가 살며시 다가가 앞에 앉는다.

리용호

(어색하게 웃으며) 마상 입었어?

신병

...?

리용호

마음의 상처 입었냐 말이야.

신병

아. 아니에요..

리용호

리얼루?

신병

...??

리용호

(또박또박) 리. 얼. 루... 진짜루

신병

(살짝 외면하며) 괜찮아요. 예..

리용호

이생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소확행이라고 생각해.

신병

저 괜찮으니까 저한테 신경 끄세요. 우리부대 소속도 아니잖아요.

리용호, 고참의 군화를 닦는 신병을 본다. 웬지 안스럽다.

리용호

이거 쭉봐. 아이.. 쭉봐~

리용호, 신병에게 군화를 빼앗더니 닦는다. 그런데 남쪽에서 닦는 것과 방식이 좀 다르다.
남한에선 구두약을 쓰지만.. 리용호는 오직 침으로만 군화를 닦고 엄청나게 손놀림이 화려하다!
군화에 침을 뱉는 리용호.

신병

(깜짝 놀라) 거기다 침을 뱉으면 어떡해요!

신병

아.. 진짜 힘들다.. 그만해요 그냥 이제..

리용호, 군화를 닦는다. 그런데 점점 광이 난다. 구두약보다 더 반짝반짝 광이 난다..

신병

와, 신기하네. 구두약을 안 썼는데 광이 나네요.. 무슨 비법이 있나 봐요?

리용호

비법은 무슨.. 이게 살다보면.. 이 구두약도 아까운 놈이 있는 기야.

(갓다 대며) 자! 함 뵈어보라우..

누가 볼까 두려운 신병,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다.. 똥!
리용호와 신병, 마주보며 웃는다.

신병

아니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리용호 아차하곤 멧쩍게 웃으며 군화에 침을 한 번 더 뱉는다.

39. 북한군부대 농장. 낮

영철이 안고 있는 새끼 멧돼지에게 봉대를 동여매주는 천우.

천우

다리가 빠졌었어..? 아이.. 다리가 빠졌었구나.. 많이 아팠겠네..

천우. 사랑을 담아 쓰다듬으며 정성껏 봉대를 매어주고.

영철

난 그것도 모르고 밤마다 어미가 보고 싶어 징징대나 했습니다.
이제 보니 동물박사시구만요. 리용호 동지한테 육사오 얘기 들었습니다..

천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뭐 남쪽에 대해서..

영철

(벌떡 일어나서) 무시하지 말라요.

영철, 자꾸 오리가 걸리져거리자.. 냅다 걷어찬다.

영철

저리 가라우! 알도 못 낳는 오리새끼....

천우

오리가 알을 못 낳아?

영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번식이 잘 안 된다 말임다.

알도 까고 새끼도 낳아야.. 농장이 번성할건데..

천우, 허리를 쭉욱 펴며 일어난다.

천우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만.. 내가 축산학과 교배전문이거든..
번식성공률을 높이려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철

분위기로?

천우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돼. 칸막이도 쳐 주고.. 조명도 무드 있게 켜주고..
음악 같은거 있으면 더 좋아. 사랑노래 같은거.

영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지요.

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영철

바로 저 노랫네다!!

40. 북한군 방송관측초소. 낮

노래

푸른 하늘에 달과 별 같이 살고.. 정든 동산에님과 나 함께 사네..
간절한 이마음 저 하늘에 달 빛 같이...

초소 안에 흘러나오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북한의 인기가요 ‘그대는 내 사랑’.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심취해있는 연희.

41. 북한군부대 농장. 낮

사뿐사뿐 노래를 흥얼거리며 농장으로 뛰어오는 연희.
그런데 천우는 처음 본 연희의 얼굴에서 눈을 땔 수가 없다.

영철

연화동무! 어서 오시라요.

연희

영철 동무! 잘 있었네?

연희

긴데.. 이 끈삼이는(북한 군인들을 표현하는 속어) 누구가?

영철

이번에 농장관리 전담병으로 새로 배치된 최정남 동뭍니다. 두 분 인사하시라요.

눈인사를 주고받는 천우와 연희.

연희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천우의 가슴은 어느새 쿵쾅쿵쾅..

FLASH BACK

옥상초소, 로또와 함께 찾아왔던 미녀모델의 사진. 잉크하는 미녀모델.

지금 천우의 눈앞에 나타난 연희는 바로 그 미녀모델의 얼굴이다.

42. 북한군부대 농장. 밤

천우, 딸각, 카세트를 누르면 <그대는 내 사랑> 노래가 흘러나온다.

동물들의 사생활을 위해 칸막이를 만들어준 천우, 더덕, 당근 같은 특식을 넣어주며 슬며시 차양을 닫아준다.

천우

잘 자라.

천우, 나가면서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지고 어둠속에 잠기는 농장 실내.

이내, 탁! 천장에서 화려한 미러볼이 돌아간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깔리는 농장, 이제 온전히 동물들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에 반응하며 가만히 고개를 드는 닭과 오리와.. 토끼와 돼지..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농장의 밤.

43. 비무장지대. 낮

말뚝으로 안전지대를 따라 가이드라인이 쳐진 비무장지대.

지뢰탐지기를 든 2인 1조 선발대가 앞서가고 하중사를 비롯한 수색조가 그 뒤를 따른다. 거기에 리용호도 끼어있다.

순간 “툭!”하는 소리.

하중사

동작 그만!! 동작 그마아안~!!!!!!

일제히 얼어붙는 수색조들.

하중사

지되다.. 모두 물러서 모두 물러서

보면, 신병이 그만 지뢰를 밟고 말았다.

하중사

너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고!! 새끼야! 본부중대 연락해! 빨리 지뢰제거반 연락해!

병사1

예! 알겠습니다!

리용호

그러면 늦습니다.

리용호, 대검을 빼어들고 사람들을 헤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선다.

리용호

모두 물러나세요..

어느새 사람들은 저만치 물러서 있고.

리용호

이건 우리가 심어 놓은... 아니, 그 북한이 심어 놓은 폭탄지뢰 입니다. 살상 반경은 3미터..한 5미터 정도?

사사삭! 사람들은 더 뒤로 물러나고..

리용호

이건 밟거나 뚜껑이 열리면 터지는 원리입니다. 뚜껑이 열리기 전에 안전핀을 제거해야 됩니다.

(신병을 올려다보며) 오나전 고답 같은 상황이지?

신병

....네??

리용호

고구마 100개 먹어서 완전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 말이야.

능숙하게 대검으로 안전핀을 제거하는 리용호.

자신의 발로 지뢰를 눌러 무게중심을 맞춘 후, 조심스럽게 신병을 밀어낸다.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신병.

그리고 안전핀을 제거하는 리용호.

리용호

(목함지뢰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모두 엎드리라우!!!!

하중사

(자기도 모르게 복창) 엎드리라우~~~!!

병사들

(복명복창) 엎드리라우~~!

엎드리라우..?? 이상함을 느낄 새도 없이 일제히 엎드리는 병사들.

리용호, 목함지뢰를 풀숲에 던지면...황!!!!

하중사

엎드리라우?..

그러다 이내 의심을 떨치고 리용호 쪽으로 뛰어가 상황을 확인한다.

하중사

(감동)바... 박수... 박수!! 박수!!

병사들

(감동의 물결) 우와~!!!

하중사와 병사들, 리용호를 중심으로 물려들어 박수세례를 보내며 환호한다.

아직까지 별별 떨고 있는 신병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리용호.

쏟아지는 박수를 받으며 지뢰를 제거하고 신병의 목숨을 구한 리용호의 얼굴에서..

44. 북한군부대 농장. 아침

다음날, 농장에 출근. 칸막이 차양을 열어보는 영철. 입을 다물지 못한다.

겨우 하루 하나 알을 낳을까말까 했던 닭들이 수십 개의 알을 낳았고, 암탉은 알무덤 위에 앉아 있다.

뒤뚱거리며 걸어차이거나 했던 오리들도 수십, 아니. 수백 개의 알을 낳아버렸고..

수컷 오리는 기진맥진한 채 벽에 기대 실신해 있다.

영철

헉.....!

45. 북한군부대 농장. 낮

어마어마하게 농장식구들이 붙어난 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닭과 오리들이 쏼뽕쏼뽕 알을 낳고 있는 기적의 현

장.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북한군 지휘관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찌억 벌린다. 엄청난 대박의 현장이다.

김광철

대대장 동지, 이걸! 이걸 기적입네다. 하룻밤에 달구새끼가 달걀을 백 개씩 싸지르고..

오리새끼가 알을 십분 마다 하나씩 내지르고..

토끼새끼, 돼지새끼 미친 듯이 새끼들을 싸지르고 있지 않았습네까?

우리 공화국의 식량문제가 드디어 해결 된 거란 말입니다!

천우에게 다가가는 지휘관. 천우 움찔한다.

지휘관

와 이제야 나타난 것이네..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올 것이디!

와 이제야 나타난 거란 말이야!!!

천우

...

지휘관

최정남 동무. 동무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 한 국가인재야! 안 되잖어!

내레 최정남 동무를 당장 간부양성학교로 추천하갓어!

간부학교 추천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는 최승일.

최승일

대대장 대대장 동지! 최정남 동무는 이제 갓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입네다..

아직 배워야할 게 많습네...

지휘관

닥치라우! 이미 결정한 일이니 당장 간부양성학교로 보내라우!

CUT TO

지휘관과 김광철이 떠나고 다시 평화로운 농장.
영철이가 쇠스랑질을 하고 있다. 옆에 쭈그려 앉아 있는 천우.

천우

간부학교로 간다는 게 뭐야?

영철

남조선엔 사관학교가 있지만 북조선엔 사관학교가 따로 없다.
누구든 추천서를 받으면 바로 간부양성학교로 뽑혀서 가는겁니다.

천우

언제?

영철

추천서 받은 다음날 출발하디요..

천우

어디로?

영철

아 어디긴 어디갔습네까... 평양이디.. 축하드립네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봤시오.

견잡을 수 없는 사태임을 깨닫고 명해지는 천우.

46. 북한군부대 수송대. 낮

최승일

정신차리라우!!!

최승일과 천우, 지휘관 차량뒤에 숨어 천우를 평양으로 데리고 갈 군용트럭을 보고 있다.
그때, 군용트럭 아래서 나오는 철진. 은밀하게 최승일과 천우 쪽으로 합류한다.

최승일

저 차가 운행가능한 유일한 차량이야.
어케 땄네?

철진, 품에서 부품을 하나씩 꺼내는데 베어링, 등속쥬인트, 쇼바스프링.. 점화플러그...기타등등..

철진

원진 모르지만 일단 다 빼왔습네다!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수리하는데 사나흘은 족히 걸릴 겁니다. 이판사판입니다.

최승일

이야 이거이! 잘 했구만 기레..가자우.. 설마 기적이 일어나겠어?
(돌아서는데.. 부르릉..!!!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난다)

먼지를 날리며 일행 옆을 보란 듯이 지나가는 군용트럭. 좌절하는 일행.

최승일

내말 잘들으라우. 기왕 이렇게 된거 넘어오는기야.

천우

저 집에 가고싶어요...

철진

평양이 어떤덴줄 아십니까? 가고싶어도 못가는 곳임다.
천우동무 기냥 이참에 팔자를 고치는 겁네다.

천우

저 집에 가고 싶다고요..

최승일

기르게 왜 달구새끼 오리새끼를 알을 싸지르게 만든기야..

천천히 고개 돌리는 세 사람의 얼굴에서..

47. GP 육상초소. 낮

저 멀리 망원경으로 보이는 대대장의 지프차.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강대위의 얼굴에서.

강대위

(망원경 떼며) 쫓됐다..

48. GP 위병초소. 낮

부동자세로 입구에서 대기 중인 강대위와 하중사.
끼익! 강대위와 하중사 앞에 도착하는 대대장의 1호차 지프.
철컹, 지휘봉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대대장.

강대위

충성!! 437 소조장! 강은표!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는 철통같은 경계태세로!

대대장

어디 있나?

강대위

..누구 말씀이십니까?

대대장

자기 몸을 던져 지뢰를 제거한 영웅병사! 어딴냐고.!

강대위

(당황) 그.. 하중사 (눈치준다)
그 GP 체험병사 그.. 근무.. 나갔나?

하중사

식당에 있는데요.

대대장

식당으로!

대대장, 바로 몸 돌려 식당을 향해 출발!
강대위, 서둘러 대대장을 쫓아간다.

49. GP 식당. 낮

식당에 들어서는 대대장과 부관, 강대위와 하중사.

고참병사

(벌떡 일어나) 부대~ 차렷!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

(경례를 하려는 고참을 향해) 앉아 식사해.. 식사해

사병들을 격려하며 걸어오는 대대장의 눈에 가장 왕성한 식욕으로 리용호가 밥을 먹고 있는 게 보인다.

대대장

저 친군가?

하중사

탁월하십니다. 바로 저 병사입니다

대대장

내가 축이 좋아.

대대장, 두뼉두뼉 리용호에게 다가간다. 리용호의 옆에서 밥을 먹던 신병은 대대장을 보며 바짝 긴장.

대대장

(리용호의 어깨에 다정한 손) 자넨가?..

자네가 지뢰를 제거하고 전우의 생명을 구한 그 병사?

지휘관의 질문에 관등성명이 안 나온다는 건 대한민국 군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강대위가 연신 입모양으로 관등성명! 관등성명!.. 알려주지만.
우리의 리용호는 대대장이 어깨에 손까지 올렸는데.. 스윽, 올려다만 볼 뿐, 관등성명이 없다.

리용호

네..

대대장

네..?

강대위, 하얗게 질리며 긴장한다.

강대위

(속삭이듯) 과.. 과.. 관등...관등.. 경례....

대대장

그래 아주 밥을 씹씹하게 먹는구만.. 그래, 뭐 군 생활에 불편한 건 없고?

리용호

네..

대대장

(리용호의 대답을 의아해하며) 네..?

(애써 웃으며) 그래 자네 고향은 어딘가?

리용호

저기 위에..함.....

강대위,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한다. 리용호에게 눈치를 보내는 강대위.

대대장

함? 함...? 함 어디?

리용호

함부르크입니다.

대대장

(반색하며) 함...함부르크? 독일 손흥민 SV 그 함부르크?

리용호

...네..

대대장

이야! 내가 찾던 모범병사가 바로 여기 있구만!

송고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외국국적까지 포기한 참 군인!!

그래, 자네는 어떤 각오로 외국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대한민국 군인이 되려고 했는지 한 번 말해보게!

독일어로.

순간, 당황하는 강대위와, 리용호. 리용호, 일어선다. 그에게 집중되는 식당 안 병사들의 시선들.

긴장하는 강대위는 침이 마르고, 대대장과 부관, 병사들은 리용호를 쳐다보며 답을 기다린다.

리용호

....

리용호, 식은땀이 흐른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답을 기다리는 대대장과 식당 안의 남한 병사들. 여기서 독일어를 못하면 바로 죽음이다.

주머니를 움켜쥐는 리용호.

FLASH BACK

최승일, 어두운 표정을 하고 리용호에게 작은 알약을 건넨다.

최승일

리용호 동무.. 만에 하나 이거이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만 기래..

위기상황은 인간을 초인으로 만드는 법, 그 순간 리용호의 뇌리에 예전 장면이 하나 떠오른다.

FLASH BACK

북한군 행정실, 리용호와 철진이 독일전쟁영화를 보았던 기억.

리용호

메아크뷰어디히 (흥미롭군)

파스 아웁 텐 드롭 폰 슈미어러(윤활유의 압력을 조심해)

철진

이야.. 동무래 이젠 아예 외우겠습니다.

리용호

내래 이거 백번도 넘게 봤어 야.

다시 현재. 절제절명의 위기상황 속에서 영화 속 대사들이 리용호의 입에서 엉뚱한 독일어가 되어 튀어나온다.

리용호

메아크뷰어디히 (흥미롭군)

강대위

나는 한국인입니다.

대대장

알아 들은거야?

강대위

네..

대대장

통역!

강대위, 앞으로 나와 리용호의 옆에서 독일어를 통역해준다.

리용호

파스 아웁 텐 드롭 폰 슈미어러 (윤활유의 압력을 조심해)

강대위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건..

리용호

디 게라일축 낱 앵글란트, 핀프.. (영국행 수송함이야. 5척이나..)

강대위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리용호

이어 페아슈벤테트 아인콰 덴 브렌슈툼 (연료를 잘도 낭비하고 있군)

강대위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 뿐이니까요.

리용호

페어담테 헬레, 발트 베아는 디제 쇼네 게포이얼
(저 망할 놈의 달.. 곧 이 애뽀이들을 발사하게 되겠군)

사람들, 점점 리용호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잠깐 멈칫하는 강대위. 리용호가 빨리 하라며 눈짓을 준다.

강대위

누구나 할 수 없는 최전방 경계임무

리용호

놓 티퍼... 바스 망스두 덴, 바스 망스투
(더 깊이.. 뒤흠하는 거야.. 뒤흠냐고)

강대위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리용호

에스 이스트 페어퀵트, 링팅 페어퀵트 (미쳤군.. 제대로 미쳤어)

강대위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조금씩 감동에 젖어가는 사람들.. 벌써 대대장의 눈가는 그렇그렇...

리용호

게엔 비어 말, 베아폰 츠바이 그로세스 (들어간다 큰 거 두 방을 날린다)

강대위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길고 긴 통역이 끝났다.

어느새 감동이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는 식당 안.

눈물을 닦아내는 병사들과 대대장

신병

형...

대대장

기립!! 박수~!!! 박수~!!!

와~!! 일제히 기립박수로 독일에서 온 이방인 리용호를 환영한다.

강대위 안도의 한숨을 내린다.

대대장

당케~!! 당케~!!! 야.. 감동의 아우토반이야!

50. 북한군부대 입구. 낮

와~!!! 열성팬들처럼 북한 군인들이 열광적으로 꽃다발을 흔들며.. ‘최정남 동무에게 영광을!’

‘일심단결 강성국가’ ‘자력갱생 건인불발’.. 플랜카드도 흔들고 있는 풍경이 펼쳐진다.

대기하고 있는 트럭에 꽃다발을 걸고 올라타있는 천우..

천우, 트럭에 올라타 최승일과 철진을 애처롭게 바라본다.

하지만 최승일과 철진 병사들 사이에 섞여 뜨겁게 박수를 친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엇질러진 물이기 때문이다. 원망스러워하는 천우의 얼굴에서.

CUT TO

부대외곽, 평양 가는 길.. 트럭에 오른 천우는 평양으로 간다. 천우, 불을 뿜을 때려본다. 아프다. 이건 꿈이 아니다.

천우의 눈에 ‘평양 230키로..’ 보인다. 천우, 그렇게 평양으로 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연희

헉..헉.. 차 세우라요! 멈추라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면, 트럭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종이 한 장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연희가 보인다.

자전거를 급히 세우며 트럭을 막아서는 연희

연희

(경례하며) 군단정치부 명령입니다.

트럭으로 다가가 간부에게 명령서를 전달하는 연희.

연희

최정남 동무의 간부학교 차출을 연기하고! 혁명적인 식량증산 비법을 영상으로 남겨!
모든 전조선 부대에 우선적으로 전파하십시오!

천우, 연희를 바라본다. 그녀는 천우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낸 생명의 은인이다.

51. 북한군부대 농장. 낮

한쪽에 피어있는 화사한 꽃다지 길, 연희와 천우가 나란히 앉았다.

천우, 연희를 뻔히 바라본다. 예쁘다.

연희

내가 군단정치부에 제안서를 올렸습네다. 기술 좀 썼지요 뭐..

천우

고맙습니다.. 드릴게 이거밖에 없어서..

천우, 꽃다발을 연희의 목에 걸어준다. 그런데 연희는..

연희

(다시 천우에게 걸어주며) 착각하지 마시라요. 이거이 오라버니 때문이니까..

천우

....??

연희

영철 동무한테 다 들었습니다.. 걱정노라요..

연희와 천우, 시선을 주고받는다.

연희

아야.. 나 궁금한거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되잖습네까?

천우

그럼요.

연희

혹시 방귀남이라는 아새끼 아십네까?

천우

...

연희

고 아새끼래 고거.. 내가 방송만 하른 끼어들어서 분탕질을 한단 말임다.
오토케 생긴 새끼지 만나기만 하른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고무줄을 끼가지고 줄넘기를 할 텐데 말임다.
고런 천하의 개쌍놈하곤 절대로 친하지 마시라요.

천우

네.. 네헤...

천우, 계면쩍게 웃는다. 연희도 따라 웃는다.

52. 북한군부대 농장. 몽타쥬. 낮/밤

좌르르, 카메라로 기록영상을 찍는 영철의 시점으로 천우가 젖소 옆에 서 있다.

마이크를 든 연희, 천우에게 다가가며.

연희

많은 인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오토케 그렇게 교배사업을 진투적으로 잘할 수 있었나.. 하는 겁니다.
최정남 동무만의 특수비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천우

똥보다 젖소의 우유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문지르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네다.

연희

아, 문지르기! 무엇보다 문지르기가 중요하구만요.

젖소의 가슴을 주무르는 시늉을 하는 천우.

천우

젖소의 가슴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이 만져주면서 문쳐있는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겁네다.

CUT TO

함께 마주앉아 젖소의 젖을 짜는 천우와 연희.

젖소 뒤로 숨었다 보였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아사모사한 감정이 묻어난다.

우연히 두 사람의 손길이 스칠 때면 팬스레 연희의 컷볼도 발강게 달아오른다.

천우

자...보시라고.. 자 이렇게 쪽쪽 짜면서... 잡고 쪽쪽...

연희

이렇게 말입니까?? 보여주시라고..

CUT TO

북한 어린이들이 하는 빨간스카프를 새끼멧돼지의 목에 매주는 천우와 연희. 양증맞다.
새끼멧돼지와 장난을 치는 천우와 연희.

천우

(새끼멧돼지를 보며) 너 그만 먹어. 그러다 너 돼지 된다~

연희

왜진데...호.

천우의 농담에 베시시 웃는 연희. 그런 연희를 보며 웃는 천우.

CUT TO

미러볼을 정비하는 천우. 천우와 연희 동물들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차양을 쳐준다.
바라만 봐도 좋은 천우의 눈에 이 순간 연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천우

잘하시네요. 으호.. 잘하... 꼼꼼하시네요...

CUT TO

해질녘, 북측 관측초소에서 대남방송을 함께 하는 두 사람.

연희

오늘 아침 우리 농장에서는 닭이 알을 645개를 낳았답니다.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교배전투의 성공적인 비법이 뭘ने까?

천우

사랑이지요...

연희

아.. 사랑이구만요..

천우

예~ 사랑이디요. 으호호...

CUT TO

GP옥상초소, 대남방송을 들으며 컵라면을 몰래 먹고 있던 리용호.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는 여동생 연희와 천우... 눈이 커지며 어이없어하는 리용호의 얼굴에서..

리용호

뭐.. 뭐... 사랑!!!

CUT TO

북측 방송관측초소. 함께 뒷정리를 하는 가운데.. 천우가 연희의 손이 정리하는 와중에 손이 맞닿고,
연희가 부끄러워 먼저 자리를 뜬다.

연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천우

(두고간 다이어리를 발견하며) 어어... 연희씨..! 저...

다이어리에서 사진 하나를 발견한다.

아버지, 연희, 그리고 리용호.... 연희는 바로 리용호의 여동생이었던 것이다.

천우

하사 리용호?

53. 서울. 지하철 안. 낮

지하철이 한강 위 철교를 시원하게 질주한다.

군복을 입고 깃스를 한 만철, 드디어 서울에 도착. 지하철을 탔다.

강대위 (OFF)

분당선 서현역 국군수도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너의 일생일대의 임무는 시작되는거야.

무조건 지하철을 타! 지하철이 가장 안전해.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마. 절대 마주치지마 절대로!

만철,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죄다 의심스럽다.

가운데를 만져보는 만철. 잘 있나 확인을 하고.. 흑시나.. 또 한 번 만져보고 안심을 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그런지 촉이 곤두서 계속 가운데를 만지게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맞은편 여학생의 핸드폰에 찰칵, 찍힌다. 부리나케 SNS에 올리는 여학생. 해시태그가 달리는데 제목은.. #지하철 변태남 #1분마다 만지는 #군복입고 #깁스하고 자꾸 만지는 #변태군바리.

54. 서울 곳곳. 낮

찰칵, 화장실을 나오면서도 한 번 만지고..
찰칵, 지하철 환승안내판을 쳐다보며 계속 만지고..
찰칵,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한 번 만지고..
찰칵, 걸어가면서도 한 번 만지고..
찰칵, 지하철 개찰구를 나오면서 한 번 만지고..
로또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동선을 따라.. 찰칵, 찰칵, 시민들에게 찍히며 인스타에 올라간다.
핸드폰을 만지며 스쳐가는 시민들 위로 말풍선처럼 화면이 하나씩 떠오르는데..
빌딩 전경에 변태군바리 관련 게시물들과 해시태그로 가득 찬다.
#2호선 아현역 변태군바리 발견. #5호선 충정로역에서 나도 발견. #5호선으로 갈아타는 게 확실해보임.
#서울을 헤매고 다니는 변태군바리 #일리를 찾아라 #지하철 변태남을 잡아라. 등등이다.

55. 북한군 사무실. 밤

책상에 앉아 손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있는 보위지도원 김광철.
똑똑, 문이 열리며 연희가 들어온다.

김광철

들어오라..

연희

보위지도원 동지, 부르셨습니까?

김광철

어, 연희 동무, 거기 앉소.

내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군단선전대 업무는 불편한 게 없는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오.

연희

없습네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달러로 사온 기름로선을 꺼내 탁자위에 올려 놓는 김광철.

연희

이거이 뭘네까?

김광철

얼마 전에 달러로 사온 건데..기름로선..

연희를 훑어보는 김광철의 끈적한 시선.. 다가오는 불쾌한 입김..

김광철

향이 좋습디다.. 연희동무 생각이 나더만..

기카고.. 거 포도주도 좋은 게 있어서 하나 사왔는데.. (슬며시 어깨에 손을 올리는테)

연희

(일어나며) 일 없습네다. 기카고 보위지도원 동지한테 이따위 선물 받을 이유도 없습네다.

INSERT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천우, 사무실 창문으로 연희를 발견하는데..

김광철

(잡아챌다) 왜 자꾸 이카네.. 내래 너 뒤를 봐준다하지 않았어...

연희

일 없시요!

나가려는데, 거칠게 남아채 소파위로 던져버리는 김광철.

김광철

이 에미나이, 이게 말이 안 통하는구만!

겁에 질린 듯.. 주춤주춤 물러서는 연희인 듯한데..

INSERT

이 광경을 목격한 천우, 주마등처럼 생각이 스쳐간다. 여기서 끼어들면 신분이 노출되고 그럼 끝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연희가 위험한 상황.. 천우, 사무실로 쳐들어가려던 순간!

연희

보위지도원 동지, 영화를 참 많이 보시나 봅네다.

김광철

뭘?

연희

영화에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여잘 자빠뜨리면 여자들이 넘어가디요?
그렇지만 영화와 현실은 다르습니다.

연희, 다가오더니 두 눈이 번쩍! 짹! 짜다구를 날린다.

연희

혁명의 전초선 기지에서!! (따귀 짹!)

김광철

(느닷없는 따귀 맞고 당황)...

연희

이런 찌어빠진 당성을 가지고! (따귀 짹!)

손바닥으로 양싸다구를 날리며 김광철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연희.

김광철

....연희.

연희

조국 통일의 막중한 림무를 맡은 군단선전대 정예요원을 (양손으로 짹짹!)

김광철

아파.. 아파.. 아파

연희

발정난 개놈처럼 노리게 삼것다?

급기야 김광철의 먹살을 잡아채더니, 유도 엎어치기로 퍽!! 구석에 매다 꽃아버린다.

연희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쌍..

밖으로 나가는 연희. 마침 문밖에 있던 기겁한 천우를 발견.

연희

(나긋나긋) 어머나... 여긴 어쩐 일입니까?

천우

(주춤주춤) 예? 아.. 저, 그냥 지나가다..

연희

막대커피 한 잔 하자요. 가자요,

천우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연희의 뒷모습 위로...

천우

(쓰러진 김광철을 보고 얼떨떨 한 채로) 예..

56. 서울. 농협은행 본점 앞. 낮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로또당첨금을 수령하는 농협은행 본점에 도착한 만철.
출입구를 나오며 여기서도 한 번 스윙....만져보고..

강대위 (OFF)

농협 본점 앞에는 브로커들이 있어. 로또당첨차는 30% 내외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
이들 브로커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20% 정도의 돈을 떼고 전액 현금거래를 제안하지.

만철, 주변을 둘러본다. 정말 은행 앞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 모두 수상해 보인다.

강대위 (OFF)

하지만 다 사기꾼들이야 잘못 걸리면 로또만 빼앗길 수 있어. 그 브로커들을 조심해야 돼.

웬지 수상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만철을 주시하는 브로커(40대)와 시선이 마주친다.
브로커, 천천히 만철을 향해 다가오는데.. 화들짝, 만철이 은행으로 뛰어 들어간다.

57. 서울. 농협은행 본점 로비. 낮

농협은행 본점로비에 들어서는 만철. 본점은행은 어느 은행과 다르다.
지점이 없는 대신 건물로비에 보안검색대가 있고 권총을 찬 청원경찰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곳이다.

강대위 (OFF)

은행에 가면 바로 청원경찰을 찾아. 그곳엔 로또 당첨자들이 탈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지.

청원경찰과 보안검색대, 그리고 전용엘리베이터를 확인하는 만철.

강대위 (OFF)

경찰을 만나서 엘리베이터를 타. 거기까지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만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읍... 아랫도리를 만져보고...청원경찰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청원경찰이 미소를 지으며 만철을 기다린다.
공교롭게도 청원경찰은 방금까지 핸드폰으로 변태 군바리 SNS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청원경찰

어서 오세요. 변태 군바리씨..

만철을 잡으려고 확! 손을 뻗지만 만철 피한다.

만철

(도망가면서) 왜요 왜!! 왜 그러세요!

청원경찰

니가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알아?

58. 농협은행 본점 건물 앞. 낮

후다닥! 회전문을 밀치며 만철이 도망쳐 나온다.

청원경찰

거기 서!! 이 변태 군바리 새끼야!!

만철

아 왜 그러는데..!?! 아 줌! 진짜!

만철, 허겁지겁 모퉁이를 돌아 죽어라 도망을 친다.

59. GP 강대위 집무실. 낮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강대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변태군바리’.

강대위

...??? 변태군바리??

강대위, 변태군바리 검색어를 클릭하면.. 주옥.. 올라오는 SNS 화면들.

#아현역 변태군바리. #충정로역 변태군바리 #천하장사 사먹는 변태군바리..#여자 쳐다보는 변태군바리.. 등
등.. 서울에 도착, 지하철을 타면서부터 농협본점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SNS에 오른 만철의 일대기가
다양한 해시태그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검색어 1위에 오른 변태군바리는 바로 만철이었던 것이다.

강대위

뭐야 이게. 만철? 왜도망가? 이세끼 돈 아직 못찾은거야?
(어이없다) 이 새끼.. 서울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강대위, 만철에게 전화를 건다. 드르륵, 드르륵..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는다.

60. 서울, 어느 뒷골목. 낮

청원경찰을 피해 한참을 정신없이 도망치던 만철, 숨을 헉헉거리며 멈춘다.
만철,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없다.

만철

...!!

INSERT

청원경찰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쳤던 만철. 그 와중에 길거리에 흘리고 말았던 핸드폰.
만철, 당황한다.. 핸드폰이 없다는 건 이제 부대와 연락할 길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CUT TO

전화를 안 받는 만철 때문에 화를 내며 어쩔줄 몰라하는 강대위.

강대위

돈 이거 돈 혹시 못찾은거야? 전화는 왜 안받아! 아오... 이 쌍놈의 새끼!!! 전화 안받아??!!

61. 북한군 사무실. 낮

연희에게 양심을 품은 김광철, 책상 가득 서류를 쌓아놓고 최정남의 신상기록카드를 찾기 시작한다.
그것은 정치지도원 최승일이 담당하는 병사들의 신상기록카드들이다.

FLASH BACK

연희에게 얹어치기를 당하고 기절했던 김광철이 의식을 회복해 바라보았던 풍경.
천우에게 막대커피를 먹자며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연희, 두 사람의 다정했던 뒷모습.

그때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뒷골이 땀기는 기분이다. 다시 서류를 보던 김광철.

드르륵.. 드르륵.. 소리.

CUT TO

창밖의 동태를 살피며 TA-312를 돌리는 강대위

CUT TO

김광철, 창밖도 내다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전화기도 들었다 놔다 해보지만 소리의 진원지는 모르겠다.

이내 서류를 다시 살펴보던 김광철.. 이상한 글씨를 발견한다.

최승일이 귀퉁이에 연필로 ‘육사오’ 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김광철

최승일 육사오 50만불 / 리용호 육사오 75만불

최정남이....6월 16일 배속... / 16일 들어온 병사가 없어?

신상기록카드를 보면 최승일, 철진, 리용호와 영철의 이름 옆에 30만불, 50만불.. 거금의 달러를 적어놓았다.

육사오라는 알 수 없는 단어. 거기다 거액의 미제국주의 달러까지.. 수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김광철, ‘최정남’이라는 이름으로 농장으로 배속된 천우의 신상기록카드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김광철, 다른 서류철을 뒤져 부대 전출입기록부를 찾아본다. 하지만 거기에 ‘최정남’이라는 이름의 신병은 없다. 천우는 처음부터 가공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싸늘하게 변하는 김광철의 눈초리에서..

(DIS)

긴장을 했는지 불끈 쥔 주먹에서 올라가보면 움직이면 김광철의 사무실로 불려온 천우가 앉아있다.

김광철

우리 공화국 영웅, 최정남 동무, 뭐래 불편한 건 없어?

천우

(긴장한다) 없습네다..

김광철

최정남 동무, 고향이래 어디가?

천우

함...흠..

김광철

함.. 어디?

천우

함흥.. 입네다.

김광철

기레기레기레! 이거 반갑구만! 나도 함흥이야!

나도 고향이 함흥이라고, 함흥 어디가??

천우

(당황) 그러니까.. 함.....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김광철, 권총을 꺼내 턱,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김광철

우리 최정남 동무래.. 공화국 영웅인줄 알았어.. 긴테.. 긴테 알고 보니까 민족의 반역자였더만..

천우, 눈앞에서 권총을 보자.. 식은땀이 흐르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다.

김광철

들어오라.

문이 열리며 연희가 들어온다.

김광철

연희동무, 어서오라. 오늘 내레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

연희, 천우와 테이블에 놓인 권총을 본다. 뭔가 심상치 않다.

김광철

리용호 동무가 우리 연희 동무 오래비라디?

연희

그렇습네다..

김광철

긴테.. 우리 리용호 동무가 요새 통 안 보이더란 말이지.

연희

.....!!

김광철

연희동무는 알고 있겠디..

혹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도망 친 거 이 아닌가 해서 말이지..

김광철, 천천히 권총을 집어 든다.

연희

보워지도원 동지..

김광철, 천우의 이마에 권총을 갖다 댄다.

김광철

너 뉘기야!

천우

...!!

김광철

공화국 영웅 최정남은 처음부터 유명인물이었어! 너 누구냐고!!

하얏게 질리는 천우, 점점 코너에 물리는데..

김광철

(첼컹! 노리쇠를 당기며) 이 새끼야! 너 누구냐고!

절제절명의 순간, 질끈 눈을 감아버리는 천우. 신분이 발각되었다. 물려설 곳도 없다. 이제 모든 건 끝났다..

천우

(번쩍! 눈을 뜨며)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 병장!!!

하는데 퍽!! 연희가 천우를 걸어차 버린다.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천우.

연희

(김광철의 권총을 빼앗아) 이 종간나 새끼!! 공화국의 역적! 남조선 반동분자 간첩새끼!!

얼굴은 희멀거게 생겨가지고 달기네 알이네 씨부릴 때부터 알아봤어 이 종간나!

김광철

(당황해서) 진정하라우! 진정하라..이 새끼레 내..

김광철에게 총을 뺏어 드는 연희.

연희

내레 오늘 이 새끼 죽이고 나도 죽갓시오!!

김광철

연희동무! 그 총 이레 내라우.. 그 총, 총 이리 내라우!

연희

이거 놓으랴요!!

순간, 뿌리치던 연희의 엘보우킥이 퍽!!! 김광철의 턱주गर이에 작렬한다.

얼마나 강했는지 맞고 날아가는 김광철.. 그런데.. 우지끈!! 김광철이 넘어지며 벽이 무너진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TA-312. 전화기.. 전화기의 위치는 바로 벽속에 있었던 것이다.

곧 이어, 문이 열리며 소동을 듣고 달려온 최승일.

최승일

무슨 일이가?

연희

정치지도원 동지...

기절해있는 김광철.. 권총을 들고 있는 연희, 그리고 천우를 본다.

최승일, 대충 상황파악이 된다. TA-312 전화기를 발견한 최승일,

최승일

여겼었구만..

계획을 수정해야 갓어.. 지금 당장 남쪽으로 복귀하라우!

연희

정치지도원 동지...

최승일

내가 남쪽에 연락할 테니까네.. 당장 공동급수구역으로 출발 하라우!

연희

여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네까!! 보워지도원 동지 께어나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납네다!

최승일

연희동무 내레 특수교관 출신이야! 중동까지 갔다 온 특수교관!

걱정하지 말고 정남동무 데리고 어서 빨리 가라우. 어서..

천우

어.. 저..잠깐

연희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연희와 천우, 밖으로 나가면.. 최승일, TA-312가 있는 벽을 더 부순뒤 TA-312를 꺼낸다.
드르륵, 드르륵.. 연결을 시도하며..

CUT TO
만철이 상황 때문에 복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강대위가 바로 TA-312를 받아든다.

최승일(OFF)

받으라!

비상사태입니다. 천우 동무 신분이 발각됐습다.

62. 북한군부대. 연병장. 낮

천우와 연희 부대를 황급히 빠져 나간다. 뛰어가는 연희를 멈추며,

천우

아! 잠깐!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63. 북한군부대 농장. 낮

천우 연희 영철과 만나 작별을 고한다.
영철 천우에게 멧돼지 손수건을 건네며

영철

저... 새끼멧돼지 목수건 입네다, 새끼멧돼지가 정남동무를 유난히 따르지 않았습까?
이 손수건만 보든 우리 생각이 나시겠지요. 가시는 길에 이 멧돼지 어미품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천우

응..

영철

잘 가시라요. 정남 동무

64. 복측 추진철책. 낮

비무장지대에 멧돼지 새끼를 풀어주는 천우

천우

어서가! 다치지 말고 엄마 꼭 찾아!

연희

어서가자요 시간 없습니다.

천우

연희씨 가도 괜찮겠어요?

연희

일 없습네다. 어서가시자요.

천우, 연희와 손을 잡고 비무장지대로 나아간다.

65. 북한군 사무실. 낮

테이블 위, 양쪽으로 분해되어 있는 권총 두 자루. 가운데는 총알 하나가 세워져있다.
분해된 권총을 앞에 두고 마주앉은 최승일과 김광철. 긴장감이 감돈다.

최승일

이보오 김광철 동무, 동무에겐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어. 큰돈을 받아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
나머지 하나는.. 동무도 내도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둘 중 하나는 여기서 죽는 기야.

김광철

총을 먼저 조립하든 너가 죽는기야 이 새끼야..

최승일

기칸테 동무는 참 운이 없어.. 내래 총참모부 작전총국소속 525 특수작전대대 출신이거든.
AK47, SR-25, M9 베레타, 글록 17, 그동안 내 만져본 화기들이다 이기야!..

김광철

기래? 긴테 나도 총이라든 어디가서 가서 뒤지지 않아.
내 인민무력부 경찰총국 산하, 38항공 육전대 저격여단 출신이거든.

최승일

김광철 동무 선택 잘 하라우.

하면서 동시에 다다다다! 총을 조립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특수부대 저격여단 그런 건 다 어디가고.. 스프링이 튀고, 부속이 날아가고, 조립하다 떨어뜨리고.. 두 사람 다 허둥지둥 우왕좌왕이다. 척척, 처처척, 간발의 차이로 조립을 끝낸 최승일, 철컹! 권총을 겨누면.. 동시에 김광철이 총알을 확! 잡아챈다. 조립이 빠르면 뭐하나, 총알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걸.. 병진 최승일의 얼굴위로.. 펑!! 김광철의 주먹이 날아들며..

66. GP 강대위 집무실. 낮

컴퓨터 화면가득, 서울 전체지도가 보인다.
SNS에 오른 만철의 동선을 따라 위치가 표시되면서.. 강대위의 목소리 깔린다.

강대위(OFF)

자 국군수도병원, 외출증 끊고,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서 14시 출발..
2호선 선릉역 교대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 종로 3가에서 다시 5호선으로 환승..

지점, 지점마다 뽕! 뽕! 해시태그와 함께 만철의 사진이 올라온다.

강대위(OFF)

서대문역 농협 본점 도착..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근태... 15시 30분 갑자기 농협본점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찍힌 변태군바리 SNS 사진을 시간 순서 대로 추적하는 강대위.
도심지도에 하나둘 떠 오르는 만철의 SNS 사진들.

강대위(OFF)

15시 48분 광화문에서 천하장사 사먹고, 16시 01분 로또도 사고, 을지로3가에서 순대 사 치먹고, 핫도그를 사먹고, 종각역 아메리카노를 사 치먹어 왜. 자전거 수리대를 왜 구경하고, 놀이터까지 가나....

만철이가 마지막으로 사진 찍힌 장소의 사진을 확대해서 상호명을 알아내는 강대위.

강대위

그래. 5분 전에 올라 왔네.. 황가네 칼국수... 너 이제끼 딱 걸렸어.

67. 서울. 황가네 칼국수. 낮

후루룩, 후루룩, 칼국수를 먹고 있는 만철이 보인다.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은 가게 주인.

가게주인

네 칼국수 집입니다. 누구요? 변태군바리씨? (잠시 고민)... 저.. 손님 중에 변태 군바리씨 계십니까?! 변태 군바리씨!!

아직 자기가 변태 군바리인줄 모르는 만철은 주변을 둘러본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가게주인

전화 왔어요. 받아보세요. 아 어서요.

고개 가웃... 만철, 카운터를 향해 다가간다.

만철(OFF)

어보세요. 통신보안.

강대위(OFF)

야이 새끼야 너 은행에서 돈 찾았어!?

만철(OFF)

아 왜 화를 내세요! 쫓겨났어요!!

강대위(OFF)

뭐?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면 브로커가 맞은편에 앉아있다.

68. 어느 골목. 낮

길가에 쭈그러 앉아 망연자실 하고 있던 만철.
그 순간.. 태양을 등지고 천천히 만철의 앞에 등장하는 아까의 험상궂은 브로커.

브로커

혹시... 로또...??

주춤주춤 겁에 질린 만철의 얼굴 화면 가득 들어오며...

69. 비무장지대. 밤

푸르르... 푸르르.. 분노의 입김을 날리며 새끼를 찾는 어미 멧돼지.
콩.. 콩..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의 진원지를 찾았는지 책, 고개를 돌려 둔덕을 뛰어 달려간다.

70. 공동급수구역. 밤

천우의 주머니에 넣어둔 새끼멧돼지의 스카프에서 모락모락 채취가 피어오른다.
공동급수구역에서 다시 만난 남과 북의 병사들, 연희, 다가오는 리용호를 발견하고 뛰어간다.

연희

여기가 맞습네까?

천우

네. 맞아요.

강대위

어! 천우야!

연희

오라버니...!!

철진

어! 연희동무!

리용호

(깜짝 놀라) 연희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기가?

연희

말하자면 길어. 오라버니는 일 없시요? 어디 다친 덴 없소?

천우 옆에서 쿨럭거리자, 연희 천우에게 금새 쪼르르 달려간다.

연희

괜찮습니까?..

리용호, 연희의 옆에 꼭 붙어있는 천우를 째려본다.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

강대위

승일이는 늦네? 무슨 일이 생긴거야?

철진

그나저나 돈은 찾았답니까? 만철동무도 별 일 없이 오고 있는 거데요?

강대위

아이.. 그 꼴통새끼

71. 달리는 차 안. 늦은오후

운전 중인 브로커, 뒷좌석엔 중년의 여사장이 앉았다. 그 옆에 공손히 앉아있는 만철.
여사장, 뻔히 만철을 쳐다본다. 만철,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72. 공동급수구역. 밤

와락! 천우의 먹살을 틀어쥐는 리용호의 얼굴에서..

리용호

육사오 사업하라고 보내왔더니 하나밖에 없는 내 여동생한테 수작을 걸어?
이 종간나새끼! 한 번 말해 보라! 어떤 수작 부렸는지 한 번 말해 보라!

연희

오라버니, 왜 기래요?

철진

리용호 동무! 참으시라요!

천우

형..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리용호

형? 내가 왜 니 형이네! 엉!

천우

아! 한 살 많으면 형이지! 그럼 매형이라고 불러?!

리용호

(뚜껑 열린다) 매형? 이 간나새끼! 진짜 이씨.. 존간나새끼

천우

뭐!

하는데,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드는 연희의 차가운 목소리.

연희

쌍! 정작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둘이서 뭐하는 겁니까?

천우 / 리용호

...???

연희

좋은 싫든 내 맘이다. 내가 뭐 장난감이야요! 어?

강대위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 이쪽 말이 다 맞네.

연희

당장 그 먹살 노라요!

리용호, 기세에 놀려 슬그머니 먹살을 놓는다.

INSERT

공동급수구역을 향해 급하게 뛰어오는 만철.

천우

연희씨.. 고마워요.

연희

닥치라요! 그쪽도 잘한 거 하나도 없시오!

천우

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천우

김만철!!!

철진

만철동무!

만철

충성~!!!!!!

보면, 더블백을 메고 돌아온 만철이다.

만철

TOD 관측병 상병 김만철...! 임무완료..!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CUT TO

천천히 더블백을 열면.. 그 안에 보스탄백이 들어있다.

보스탄백 지퍼를 열면 눈앞에 400만 달러 현찰이 화려하게 드러난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막상 눈앞에서 달러몽치를 보자 남과 북의 병사들, 먹먹하다..

강대위

야! 너 이거 어떻게 찾아왔어? 은행 못 갔다며?

만철

이 로또 1등 당첨금은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하루 만에 현금화 한다는 건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첨금은 사실 은행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이 당첨금요.. 그분을 만나서 찾은 겁니다.

73. 달리는 차 안. 늦은 오후

중년의 여사장, 뻥히 만철을 쳐다본다. 만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다..

여사장

부자 군인 아저씨네..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떼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철

맞습니다.. 너무 뜯어갑니다.

여사장

공무원 존만어들....

만철

(꿀꺽)....

여사장

물건을 좀 보고 싶은데...

만철

에...??

여사장

물건~

(운전하는 브로커를 보며 만철을 가리키며 조용한 목소리로) 괜찮네..

만철, 일어나 스읍.....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여사장

으악! 뭐하는 거야?

만철

물건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여사장

누가 니 물건보고 싶었어? 물건! 진짜 물건! 차 실장! 왜이래?

브로커

이 자식이 미쳤나.. 바지에 손을 감히?

만철

아니야 아니야 아니예요.. 아니예요..

여사장

미쳤어? 요즘 절경절경이야!

만철

아니 아니 아니요...

브로커

야이 변태자식....!

하다.. 갑자기 만철이 무너진다.

만철

그만 제발 쏘쏘쏘!!!

예상치 못한 만철의 반응에 당황하는 여사장과 브로커.

만철

하필 여기다가 차크를 달아놔 가지고..

여사장

어머.. 흥측해..

만철

강은표 개 토라이 새끼..(불쑥) 제가요..

여사장

어..에..

만철

화장실가서 불일 불 때마다 진짜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세요?

이거 혹시 젖으면 어떡하지.. 혹시 혹시 노래저서 은행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면..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여사장

...

만철

아이 3박! 4일! 포상휴가를 주면 뭐하냐고요..

내가 내가 지금 서울와서, 서울와서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나 이거 진짜..

여사장

으악! 됐어요 됐어요!

만철

아니 아니,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여사장

아니요 안 봐.. 아니 안 봐!

만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사장

으악!

만철

왜 소리를 지르세요~

여사장의 비명과 만철이의 알아 들을 수 없는 신세 한탄으로 시끄러운 벤츠 리무진, 도심 속으로 달려간다.

74. 공동급수구역. 밤

남과 북의 병사들, 만철의 설명을 다 들었다.

강대위

남대문에서 사채하시는 뽀빠이 아줌마?

연희

뽀빠이가 뭘니까?

철진

지금치만 먹으면 눈깔이가 뒤집혀서리
아무데구 주먹질 해대는 미제국주의 양아치새끼지요

연희

뽀빠이.. 이름도 참 지랄 맞구만요..

하는데, 갑자기 다다다다!!!!!! 천장에 총알이 박힌다.

김광철

끔짝 마라우!!!!!!

기관총을 겨누며 얻어터져 통통 부은 최승일을 인질로 삼은 김광철이 등장한다.

김광철

(최승일을 일행 쪽으로 밀어버리며) 물러서!!

철진

보위지도원 동지! 이거이 미제 딸랍네다! 400만불이야요!
이거 우리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습네다!

김광철

나눠가져? 니들하고 내가? 왜?

리용호

보위지도원 동지. 이거이 평화의 육사옵네다!
북과 남이 사이좋게 나눠가지라는 하늘의 뜻입니다.

김광철

야야야! 평화? 아직도 그 따우 낭만적인 감상에 젖어있어? 평화는 무슨 죽탕 맞아 뒤질 평화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알잖어!! (다다다다다!!!)

혼비백산하는 남북한의 병사들.

김광철

간나새끼들, 내 모르는 줄 알았디? 다 알고 있었어!

김광철, 가방을 챙긴다. 천우, 멍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난데없이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천우

지금 뭐하는거야.. 그거 우리 돈이야! 내려봐!

리용호

가만있으라!

천우

다들 지금 뭐하는거야.. 어떻게 좀 해봐...!

철격, 소리쇠를 장전하는 김광철.

김광철

그래, 죽여줄게. 다 한번에 죽여줄게.. 북과 남의 병사들이여 잘 가라우..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 천우가 뭔가를 발견한다. 다른 남북 병사들도 입구쪽을 바라보고 굳는다.
김광철도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입구 쪽을 바라본다.

김광철

...???

벽을 타고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푸르르....푸르르....콧김 소리와 함께
거대한 멧돼지가 급수구역 안으로 들어와 이들을 노려보고 있다.

어미 멧돼지가 천우에게서 새끼의 체취를 찾아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김광철

저..저.. 저거..저건 또.. 뭐이가...!

흡사 영화 프레데터에서 외계인의 시점과 같이.. 열적외선 카메라처럼 보이는 멧돼지의 시점샷.
공교롭게도 김광철이 들고 있는 돈가방은 마치 남아쨌 새끼처럼 보인다.
거기에 보스탄백 끄트머리 지퍼는 새끼 멧돼지의 꼬리처럼 빠져나와 있다.

어미 멧돼지

...!!!!

모든 건 한순간 이었다... 우워워워!!!! 거대한 멧돼지가 달려들었고,
남과 북의 병사들은 괴성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고, 멧돼지의 머리에 그만 보스탄백이 걸려버렸고...
동굴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경고의 눈빛을 날리며 순식간에 돈가방과 함께 빠져나간 멧돼지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린 김광철이..

김광철

야이, 쌍놈의 멧돼지새끼! 거기 서라우! 거기 서라우! 야이 멧돼지 새끼!

최승일

철진 동무! 빨리 따라가 보라우!

다다다다!! 기관총을 쏘며 멧돼지의 뒤를 쫓았던 것이다.

75. 비무장지대. 밤

드넓은 비무장지대. 멧돼지 한마리가 달려가고 있고, 그 뒤를 군인이 총을 쏘며 쫓고 있다.
평~!! 평~!! 흡사 폭죽이 터지듯 이들의 걸으로 지뢰들이 터져 하늘로 솟구친다.
멧돼지를 쫓던 군인이 지뢰를 밟았는지 평~!! 하늘높이 치솟아..
휘리릭~ 보름달과 겹쳐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사라진 그 군인은.. 누가 봐도 보위지도원 김광철이다.

김광철

이리 오라우! 그거 먹지도 못해! 야이 멧돼지 새끼야! 으아~ 내...돈.....

76. 공동급수구역. 밤

김광철의 마지막을 확인하고 공동급수구역으로 들어오는 철진.

철진

아아.. 쏘지 마시라요! 잡니다!

최승일

어케 됐네..

철진

지뢰가 터졌습니다. 보위지도원 동지가 하늘로 승~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대위

돈은..돈은?

FLASH BACK

철진이 시선으로 보이는 돈가방을 목에 걸고 들판 저편으로 사라지는 멧돼지

철진

멧돼지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CUT TO

다시 공동급수구역. 망연자실한 철진.

철진

다 끝났습다.

용호

하아... 쌍

연희

오라버니....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천우

하아..다 끝났네..

리용호

그놈의 육사오 고거이 처음부터 다 말도 안되는 거였어. 이제 그만 돌아가자우.

최승일

지금까지 뒤향한 거이가....

일확천금의 꿈이 사라진 남과 북의 병사들, 모두가 허탈해 하는 그 순간..

만철

저기 잠깐 잠깐 잠깐!

만철, 바지 속을 더듬거린다. 연희 까악하며 뒤를 돈다.

천우

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만철

아닙니다! 박병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리용호

(연희를 보호하며) 이 쌍간나새끼!

천우

손 빼, 김만철 손 빼!

만철

예 뻔 거예요! 뻔 거예요! 뻔 집니다...

강대위

빼! 빼! 빼!

만철

뺏다! 뺏다!

강대위

어? 그게 왜 거기서 나와!?

더듬거리더니 여기저기서 돈뭉치를 꺼내기 시작한다.

만철

(승일을 향해 소매를 보이며) 아저씨 이거 이거 이것 좀..

최승일

기레 기레..

최승일이 만철이 소매의 짝퉁이를 떼어주자 또 한 뭉치의 달러가 바닥에 떨어진다.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사람들. 만철, 여기저기서 더 돈뭉치를 꺼낸다.

강대위

만철아!

만철

이거! 이거!

아까 가방에 다 안 들어가 가지고.. 제가 40만불은 따로 챙겨왔거든요.

천우

만철아.. !!

강대위

만철아....!

리용호

이거이 반... 반전이 있구만 기레 이거이 반전이 있었어!

최승일

기레기레.

강대위

상병 김만철! 당장 포상휴가다!

만철

감사합니다!

리용호

(연희와 포옹을 하며) 연희야!!

강대위

천우야!!

침 묻혀가며 바닥에 떨어진 달러 뭉치들을 세어보는 철진.

철진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보채

최승일

얼마네?

철진

40만불에서.. (만철에게 꽃히는 시선) 쩌끔... 빡네다..

슬며시 가운데를 만지는 만철, 모른 척.. 시선을 돌리고.

만철

그 뛰어오다가 쪼끔... 떨어뜨렸나?..

리용호

기레도 이거 40만불이면.. 이것..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야.

만철

그럼요 그럼요.. 40만불..

천우

여기서 반으로 나누면 20만불이니까.. 아아아... 2억 정도 되겠네!

강대위

2억에서 15프로면.. (계산해보곤)...3천만원? 팔내미 피아노하고 어머니 병원비 할 수 있겠다.

철진

기레도 이 돈이론 스위스제 틀니 100개는 살 수 있습니다..

연희

나도 끼주는 겁니까?..

최승일

어이 꺼야디..당연히 꺼야디.. 하하..(턱을 부여잡고)아아..

함께 열싸 안고 소소한 해피엔딩을 만끽하는 남북한의 병사들

CUT TO

공동급수구역

그렇게 돈을 모두 나눠가진 남쪽과 북쪽의 군인들, 이제 헤어질 시간.

만철

내 아이디 까먹지 말고 맛팔해!

철진

기레, 쪼지 할게

리용호

천우동무, 그동안 고생했어. 잘 가라우..

천우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리용호

다시 만나서 뭐하게?

천우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겠지?

리용호

기레, 한 번 통일 되게 열심히 기도하라우.. 통일이 뭐 별거?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게 그거이 통일이디..

리용호가 웃는다. 천우도 따라 웃는다..

리용호, 천우와 이별을 기다리고 있는 연희를 보곤 천우에게 경례를 하곤 돌아선다.

연희를 천우 쪽으로 밀어주는 리용호.

천우

연희씨.. 이제.. 이별이네요.

연희

잘 가시라요.

천우

연희씨도 하시는 일 다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버세요.

연희

소망하는 거 다 이루시라요. 농장도 꼭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영광있으랴요.

천우

연희씨도 꼭 가수로 성공하길 바랄게요.

연희

나중에 평양에 꼭 냉면 먹으러 오시라요.

천우

(고개를 끄덕이며) 아프지 말구요, 아프면 안 돼요.

이별이 못내 아쉬운 듯 계속 덕담을 주고받는 두 사람.

연희

기카고. 좋은 사람 만나시라요..

천우

(더 복받쳐온다) 연희씨두요..

지켜보는 있던 최승일과 강대위도 서로를 마주보며 인사를 나눈다.

최승일

가자우!

강대위

가자!

다들 그렇게 공동급수구역을 떠난다.

77. 비무장지대. 낮

드디어 어미를 찾은 새끼 멧돼지. 달려가 얼굴을 비벼댄다.

다시 만난 멧돼지 가족, 평화로운 종종걸음으로 비무장지대로 사라진다.

78. GP 야외근무초소 / 북측 방송관측초소 . 낮

야외근무초소에 올라 저 너머 북녘 땅을 바라보는 천우.

그 옆에서 떡 버티고 서서 같이 근무 중인 강아지, 빨간색 스카프를 목에 매고 있다.

북측 초소에서 대남방송이 흘러나온다.

연희

남조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조선인민군 제 25사단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천우

(방송을 들으며 웃음짓는 천우) 후훗...!!

79. 에필로그

무지화면 위로 깔리는 발랄한 목소리.

이벤트 겐

돌고 돌아 딱! 딱! 돌고 돌아 딱! 딱!

돌고 딱! 돌고 딱! 돌고 돌아 딱! 딱!!

팡이 되기 힘들만큼 넓게 칸을 차지한 돌림판에서.. 좁디좁은 아주 좁은

칸에 적힌 '팡'에 돌림판이 멈췄다. 팡이 걸린 손님들은 똥집은 표정이고, 난감해 하는 이벤트 겐들.

이벤트 겐

(난처한 표정) 와우! 어....

하지만 팡이 없는 이벤트!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며) 자~ 로또 딱! 천 원짜리 로또 딱!

(테이블에 로또를 올려놓으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벤트겐, 천 원짜리 로또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옆테이블로 넘어간다.

로또겐들이 다른 테이블에서도 또다른 이벤트 행사를 하느 사이, 로또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떠오른다.

바람에 펄럭이다가 휘잉~~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바람에 밀려 날아간다. 강독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위를 날아간다. 휘잉~~ 커브를 틀어

드넓게 펼쳐진 한강을 건너.. 빌딩숲 가득한 도심을 향해 날아간다.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로또 한 장, 뭉게구름

가득한 하늘 높이 솟구치면서..

(OFF)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휴대 전화 너머로 짓고 있을 너의 표정을 나는 몰라! 몰라!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경쾌한 주제음악과 함께.. 스텝, 캐스트 올라가면

fin